

# 朝鮮朝 經筵에서 英祖의 讀書歷 考察\*

A Study on the Yeongjo's Reading Career in the Gyeongyeon of Joseon Dynasty

金重權 (Kim, Joong-gwon)\*\*

## ◁ 목 차 ▷

- |             |           |
|-------------|-----------|
| 1. 緒言       | 5. 讀書回數分析 |
| 2. 英祖의 經筵制度 | 6. 結言     |
| 3. 晝講의 讀書日程 | <참고문헌>    |
| 4. 讀書資料     |           |

## < 초 록 >

본 연구에서는 조선조 21대 왕 英祖의 讀書歷을 살펴보기 위하여 實錄을 통해 재위 52년 동안 晝講에서의 독서일정을 살펴보았다. 영조는 경종 4년(1724) 30세에 재위하여 재정비한 경연제도에 따라 경연을 실시하였다. 그가 晝講에서 읽었던 책은 『論語』, 『孟子』, 『中庸』, 『書經』, 『禮記』, 『詩傳』, 『周易』, 『春秋集傳』, 『心經』, 『周禮』, 『大學』, 『近思錄』, 『小學』 등 13종이다. 이 중 『中庸』과 『大學』을 34년(1758)부터 39년(1763)까지, 그 뒤 다시 『小學』과 『大學』을 번갈아가며 재위 52년(1776) 1월까지 읽었다. 이는 곧 영조가 이 책들을 가장 선호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조는 재위 6년(1730)을 제외한 23년(1747)까지는 꾸준히 독서를 해왔으나 24년(1748) 후반기부터 33년(1754)까지는 거의 독서를 하지 않았다. 그의 독서 횟수는 즉위년부터 52년 3월까지 1,341회로 연평균 26회, 월평균 2.16회로 조사되었다. 이 수치는 부왕인 肅宗과도 비슷한 수치로 아주 저조한 독서력을 보여주고 있다.

要語: 經筵, 論語, 大學, 孟子, 書經, 詩經, 心經, 英祖, 禮記, 周禮, 周易, 中庸, 春秋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YeongJo's reading career in the Gyeongyeon (經筵) of Joseon Dynasty. To investigate the Silrog (the book which records the history of Korea), it knew the reading material, a reading act and attitude which he read in the Crown prince time. Major findings are as the follows; The reading materials that he read in the Jugang (晝講) for 52 years were 13 titles, that is, *Noneo* (論語), *Maengja* (孟子), *Jungyong* (中庸), *Seogyeong* (書經), *Yegi* (禮記), *Sijeon* (詩傳), *Juyeog* (周易), *Chunchujipjeon* (春秋集傳), *Simgyeon* (心經), *Jurye* (周禮), *Daehag* (大學), *Geunsarog* (近思錄) and *Sohag* (小學) etc. The number of times that he participated to the Jugang's reading discussion was 1341. He was the king who disliked reading, from 1724 to 1776, when he was in power, moreover he was not almost presented at the reading discussion of the Jugang at the end of seizure of power. As a result, YeongJo's reading career was much lower than the King's reading career in past.

Key words: Gyeongyeon(經筵), *Noneo*(論語), *Daehag*(大學), *Maengja*(孟子), *Seogyeong*(書經), *Sohag*(小學), *Sijeon*(詩傳), *Simgyeon*(心經), YeongJo(英祖), *Yegi*(禮記), Jugang(晝講), *Jurye*(周禮), *Juyeog*(周易), *Jungyong*(中庸), *Chunchujipjeon*(春秋集傳)

\* 본 논문은 2019학년도 광주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광주대학교 인문사회대 문헌정보학과 교수(jkkim@gwangju.ac.kr)

투고일: 2019년 8월 12일 최초심사일: 2019년 8월 28일 게재확정일: 2019년 9월 17일  
서지학연구, 제79집, 23-58, 2019. <https://doi.org/10.17258/jib.2019.79.23>

## 1. 緒言

필자는 조선조 왕조별 경연에 대한 讀書歷 연구를 太祖부터 肅宗朝 까지 꾸준히 실시해왔다.<sup>1)</sup> 20대 景宗은 집권 기간이 짧아 생략하고, 그의 이복동생인 英祖를 대상으로 讀書歷을 조사코자 한다.

英祖는 肅宗과 숙빈 최씨 사이에서 肅宗 20년(1694)에 태어났다. 이름은 旻이고 자는 光叔, 호는 養性軒이다. 숙종 46년(1720) 희빈 장씨의 아들 昬이 조선 제 20대 왕(경종)으로 즉위했으나 병약한 탓에 재위 4년(1724)년도 못되어 세상을 뜨게 되자 조선 21대 왕으로 등극하여 재위 52년(1776) 3월까지 51년 7개월을 집권하였다. 영조는 즉위하면서 곧 바로 모든 관제를 정비하고 선왕에 이어 經筵을 시행하게 되었다. 경연은 三講(朝講, 晝講, 夕講) 二對(夜對, 召對)로 구분하고 조강, 주장, 석강에서는 당상관 및 玉堂官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일정한 책을 강독한 후 독서토론은 물론 업무보고 및 국정문제를 논의하였으며, 夜對 및 召對에서는 독서 및 토론을 하고 싶을 때 밤이나 아니면 수시로 玉堂官을 불러들여 강독하였다. 영조는 당시 탕평정책의 실현으로 정국을 안정시키고 인쇄 문화의 발전에 힘을 기울이면서도 본 경연을 열어 독서에 집중하려고 노력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건강문제, 세자의 대리청정, 사도세자문제, 당정문제 등등의 애로 사항이 많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인성이나 국가 정책 시행을 위해 열심히 독서하려고 노력하였다. 심지어 세자의 독서 및 세손의 독서에도 관여하여 독서토론을 주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연제도 하에서 독서일정에 따라 읽었던 책이나, 독서 횟수, 경연에 참여한 경연관, 그의 독서행태 등의 이력을 알 수 있는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다만 영조 개인에 대한 단편적인 독서연구와<sup>2)</sup> 조선조 경연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들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sup>3)</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면관계상 三講 二對 중 晝講에 중점을 두고, 『朝鮮王朝實錄』을 토대로 경연제도, 독서일정, 독서자료, 독서 횟수 등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 1) 金重權, “朝鮮朝 太祖, 世宗年間 經筵에서 讀書討論 考察,” 『서지학연구』 제27집(2004. 6), 281-308.  
金重權, “朝鮮朝 文宗, 端宗年間 經筵에서 讀書討論 考察,” 『서지학연구』 제30집(2005. 6), 405-436.  
金重權, “朝鮮朝 世祖, 睿宗年間 經筵에서 讀書行態에 관한 考察,” 광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제14호(2006. 9), 29-38.  
金重權, “朝鮮朝 經筵에서 成宗의 讀書歷 考察,” 『서지학연구』 제32집(2005. 12), 537-574.  
金重權, “朝鮮朝 經筵에서 燕山君의 讀書歷에 관한 考察,” 『서지학연구』 제37집(2007. 9), 83-122.  
金重權, “朝鮮朝 經筵에서 中宗의 讀書歷에 관한 考察,” 『서지학연구』 제41집(2008. 12), 163-225.  
金重權, “朝鮮朝 仁宗의 讀書歷에 관한 考察,” 『서지학연구』 제46집(2010. 9), 267-298.  
金重權, “朝鮮朝 經筵에서 明宗의 讀書歷에 관한 考察,” 『서지학연구』 제49집(2011. 9), 77-106.  
金重權, “朝鮮朝 經筵에서 宣祖의 讀書歷 考察,” 『서지학연구』 제55집(2013. 9), 143-181.  
金重權, “朝鮮朝 經筵에서 光海君의 讀書歷 考察,” 『서지학연구』 제58집(2014. 6), 179-201.  
金重權, “朝鮮朝 經筵에서 仁祖의 讀書歷 考察,” 『서지학연구』 제62집(2015. 6), 253-296.  
金重權, “朝鮮朝 經筵에서 孝宗의 讀書歷 考察,” 『서지학연구』 제66집(2016. 6), 143-187.  
金重權, “朝鮮朝 經筵에서 顯宗의 讀書歷 考察,” 『서지학연구』 제70집(2017. 6), 21-38.  
金重權, “朝鮮朝 經筵에서 肅宗의 讀書歷 考察,” 『서지학연구』 제75집(2018. 9), 65-94.
- 2) 조윤희, “영조 어제에 나타난 『詩經』 독서의 양상과 의미,” 『정신문화연구』 제36권 제4호(2013), 230-256.
- 3) 姜泰訓, “朝鮮朝 經筵의 教育的 役割,”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대학원, 1991).  
南智大, “朝鮮初期의 經筵制度,” 『韓國史論』 6(1986), 117-170.  
李相玉, “經筵에 나타난 經學과 帝王,” 『友石 文理大·法經大論文集』 第4輯(1970. 12), 131-186.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경연제도에서는 선왕의 제도와 비교하여 개정된 사항을 밝히고, 둘째, 독서 일정에서는 영조가 독서한 날짜를 조사해서 그 횟수 및 주장에서 읽었던 책을 밝히고자 한다. 셋째, 독서 자료에서는 주장에서 읽은 책의 종수 및 읽은 기간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독서 횟수 분석에서는 52년간의 재위기간 동안 얼마나 독서를 자주했는지 수치 등을 분석하여 영조의 독서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상 본 연구의 목적은 영조 개인의 인성과 가치관 파악은 물론 조선조 經筵史 및 讀書史 연구에 일조가 되는 데 있다.

## 2. 英祖의 經筵制度

英祖의 경연제도 역시 역대 왕들과 큰 차이는 없다. 그가 즉위한 후 곧 바로 경연관들이 독서를 권장한 것도 경종의 예에 따라 실시되었다.<sup>4)</sup> 영조 즉위년(1724) 9월, 교리 오수원 등이 차자를 올려 卒哭(삼우제 후 3개월 만에 지내는 제사) 前에 선왕들의 선례도 있고, 그 예가 李珥의 『經筵日記』의 근거와 경종 즉위년(1720) 讀書의 例, 『禮經』의 기록 등의 예를 들어 孝子는 일찍이 초상으로 인하여 학문을 폐지한 적이 없다 하여<sup>5)</sup> 초상 때도 독서를 하도록 권장하였다. 다음날 영상 李光佐, 우상 趙泰億 등에 의하여 경연제도가 마련되었다. 경연의 구분은 옛 관례에 따라 朝講, 晝講, 夕講의 三講과 夜臺 및 召對로 결정하였다. 경연관 구성은 堂上官과 郎廳으로 구분하고, 당상관은 영사 3명, 지사 3명, 동지사 3명, 참찬관 7명으로 모두 겸직하도록 하였으며, 문관이 아니어도 가능했다. 領事는 삼정승(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겸하고, 정 2품인 지사와 종2품 동지사 중에서 각각 3명씩 임명하였으며, 참찬관은 정3품 승지와 홍문관 부제학이 겸직했다. 낭청은 정4품 시강관, 정5품 시독관, 정6품 검토관으로 모두 문관인 홍문관원이 겸직하였다. 시강관은 直提學, 典翰, 應教, 副應教가 겸하였고, 시독관은 교리와 부교리가 겸하였으며, 검토관은 修撰과 副修撰이 겸하였다. 정7품 司經, 정8품 說經, 정9품 典經은 參外職으로 홍문관의 博士, 著作, 正字가 각각 겸임하였다.<sup>6)</sup> 그 밖에 2품 이상의 재상을 특진관이라 하였다. 경연의 참석범위는 부친인 肅宗의 경우 朝講에는 영사 1명, 특진관 2명, 兩使 각각 1명, 晝講에는 경연관과 특진관 각 1명, 玉堂의 上下番과 備局의 당상 1인과 臺諫이 함께 입시토록 하였으며, 武臣의 당상 1인도 교대로 참여토록하고, 전에는 注書 2명이 들어왔던 것을 1명만 들어와 글의 뜻을 기록하도록 하였다.<sup>7)</sup> 영조 역시 옥당관외에 조강 때는 三公 중 한 사람, 주장과 석강은 知經筵과 同知經筵이 돌아가며 참석하고, 야대에는 玉堂官만 참여하도록 하였다. 강관이 아니더라도 학식에 고명한 사람, 그리고 도총부와 병조의 당상이나 二品 이상의

4) 『朝鮮王朝實錄』 景宗 卽位年 7月 8日(癸酉) 卷1. 冊41. p.129.

5) 『朝鮮王朝實錄』 英祖 卽位年 9月 25日(乙丑) 卷1. 冊41. p.408.

6) 『經國大典』 吏典, 正三品衙門, 經筵條. p.13 下.

7) 『朝鮮王朝實錄』 肅宗 3年 4月 5日(辛亥) 卷6. 冊38. p.354.

관리가 공무로 대궐에 들어 올 경우 그 중 1명만 소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8)</sup> 또한 종신도 武臣처럼 주장에만 번갈아가며 입시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외방에 있더라도 학식이 뛰어난 사람을 발탁하여 경연에 참여시키는 제도도 마련하였다. 당시 참찬관 徐宗燮이 外方의 讀書하는 선비를 불러 講筵에 참여시키도록 건의하였으며,<sup>9)</sup> 정언 韓德全도 상소에 의해 草野에 은둔한 선비를 職名의 有無에 관계없이 초빙하여 經筵에서 輪番으로 侍講하도록 하였다.<sup>10)</sup> 경연에서 읽을 책의 선정은 왕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었다. 경연관이 領事와 상의해서 결정하고 왕에게 보고하는 식이었다. 영조의 경우 경연관 成德潤이 영사 李光佐와 논의하여 法筵(경연)에서는 『論語』를, 소대에서는 『心經』과 『綱目』을 번갈아가며 읽을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sup>11)</sup> 경연의 장소는 時敏堂, 宣政殿, 明政殿, 涵仁亭, 崇文堂, 恭默閣, 明政殿, 歡慶殿, 熙政堂, 彰義宮, 興政堂, 景賢堂, 隆武堂, 崇政殿의 東月臺, 資政殿, 思政殿, 集慶堂, 德游堂, 司饗院 등 19곳으로 역대 가장 많은 장소를 이용하였다. 崇文堂의 경우는 영조가 “내가 病後에 기운이 매우 피곤하여 孝昭殿에 왕래할 수가 없다. 이 堂은 孝昭殿과 지극히 가까우니 殿中에 交椅를 설치하여 바라보며 의지할 처소를 만들라.” 했는데, 몇 번 이용하지 못하였다.<sup>12)</sup> 司饗院의 경우는 영조 48년(1772)에 한두 번 이용한 적이 있다. 경연의 시간은 조강의 경우 平明 즉, 동이 틀 때로 하였으나 계절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주강은 원래 午時였는데 여름철의 경우 날씨가 더울 때는 巳時(9-11시)로 하다가 辰時(7-9)로 결정하기도 하였다.<sup>13)</sup> 그리고 재위 12년(1736) 5월에는 다시 辰正(오전 8시)으로 변경하였다. 석강의 경우는 未時나 申時였던 것을 酉時 初刻(5시)으로 규정하였다.<sup>14)</sup> 독서방법은 ‘입금이 전에 배운 것을 소리 내어 한번 읽고 解釋은 읽지 않으며, 새로 배울 것은 소리 내어 한 번 읽고 단지 大文만 해석한다.’는 내용이 館中의 板에 새겨졌다 하여 이 독서방식을 따랐다.<sup>15)</sup> 즉, 복습은 음독 한 번만 하고 註는 읽지 않고, 예습도 음독 한 번씩 읽고 큰 문장만 해석한다는 독서방식이다. 이러한 독서방식은 숙종 때도 尹鑄의 대문 독서와 金錫胄의 註까지 읽어야 한다는 설전이 있었으나<sup>16)</sup> 당시 尹鑄의 주장대로 大文만 읽도록 한 경우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中庸』과 『大學』은 다른 책과 다르므로 註까지 빠짐없이 읽도록 권장하였다.<sup>17)</sup> 영조는 이와 같은 제도에 따라 영의정 李光佐, 좌의정 柳鳳輝, 우의정 趙泰億, 병조 판서 및 知經筵에 沈壽賢, 형조참판 李森, 한성우윤에 李鳳祥 등을 임명하고 관제를 재정비한 뒤<sup>18)</sup> 검토관 金弘錫, 동지경연 李眞儉 등을 소대하여 『心經』을

8) 『朝鮮王朝實錄』 英祖 卽位年 9月 26日(丙寅) 卷1. 冊41. p.408.  
 9) 『朝鮮王朝實錄』 英祖 1年 1月 27日(丙寅) 卷3. 冊41. p.467.  
 10) 『朝鮮王朝實錄』 英祖 1年 4月 9日(丙子) 卷5. 冊41. p.499.  
 11) 『朝鮮王朝實錄』 英祖 卽位年 9月 28日(戊辰) 卷1. 冊41. p.410.  
 12) 『朝鮮王朝實錄』 英祖 35年 2月 2日(癸丑) 卷93. 冊44. p.2.  
 13) 『朝鮮王朝實錄』 英祖 10年 5月 13日(戊子) 卷38. 冊42. p.436.  
 14) 『朝鮮王朝實錄』 英祖 11年 閏4月 28日(丁酉) 卷40. 冊42. p.478.  
 15) 『朝鮮王朝實錄』 英祖 10年 5月 25日(庚子) 卷38. 冊42. p.438.  
 16) 『朝鮮王朝實錄』 肅宗 1年 1月 18日(丁丑) 卷2. 冊38. p.237.  
 17) 『朝鮮王朝實錄』 英祖 3年 5月 1日(丙辰) 卷11. 冊41. p.633.

읽고 독서토론을 시작하였다.<sup>19)</sup> 즉위년 12월 27일엔 시독관 李匡輔와 함께 『綱目』을 강독하며 토론을 시작하였으며,<sup>20)</sup> 첫 주강으로 1년(1725) 1월 5일에 『論語』을 읽었다. 그리고 얼마 후 30여 명에게 관직을 제수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강을 시작하였다.

### 3. 晝講의 讀書日程

본 장에서는 재위 기간 52년을 편의상 초기 12년, 중기 21년(13-33년), 말기 19년(34-52년)으로 세구분하여 주강의 독서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3.1 初期의 讀書

영조는 즉위년(1724)엔 召對만 실시하고 주강은 없었다. 주강은 영조 1년(1725) 1월 5일에 처음으로 열어 『論語』를 강론하였다.<sup>21)</sup> 당시 1월에 실시한 주강은 5회(5, 24, 26, 27, 28일)로 참여 경연관은 지경연 閔鎭遠, 특진관 洪致中, 부제학 李緯, 부교리 徐宗燮 등이었으며, 이들은 영조에게 독서 후 실천을 권장하였다. 1월 28일엔 『論語』 <憲問> 제14장 17절 <管仲不死>章 을 읽고 閔鎭遠과 토론하였다.<sup>22)</sup> 2월엔 6회(2, 19, 20, 26, 27, 28일)를 실시하였는데, 동월 2일에는 『論語』 <憲問> 제14장 22절 ‘陳成子弑簡公’을 읽고 시독관 李箕鎭과 토론하였다.<sup>23)</sup> 19일엔 시독관 申昉과 학문에 대해 논한 뒤 지방에서 업무 보고 차 올라온 懷德縣監 李柬이 독서를 많이 했다는 사실을 알고 학문의 요점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였다. 李柬이 ‘知行’에 대해 설명을 마치자, 영조는 지금은 노모가 있어서 다시 내려 보내나 학문할 수 있는 인제가 부족하니 조만간 부르면 오라는 부탁까지 하였다.<sup>24)</sup> 열흘 후 29일에는 時敏堂(창경궁의 동궁)에서 주강을 실시하였다. 3월 주강은 7회(3, 10, 11, 12, 13, 26, 27일)였으며, 동월 3일에는 무신 申命仁이 참석하고, 10일엔 시독관 申昉, 13일엔 시독관 李箕鎭과 함께 『論語』 <季氏> 제16장 8절 ‘畏天命章’을 읽었다.<sup>25)</sup> 4월의 주강은 7회(13, 17, 20, 21, 26, 27, 29일)로 우의정 閔鎭遠, 시독관 徐宗燮 등과 함께하였으며, 5월은 6회(6, 11, 12, 16, 17, 18일) 실시되었다. 함께한 경연관은 경연지사 洪致中, 시독관 徐宗燮, 좌의정 閔鎭遠, 시독관 李箕鎭 등이었으며, 독서 자료범위는 『論語』 <子張> 제19장 19절 ‘哀矜而勿喜(불쌍히 여기고 기뻐

18) 『朝鮮王朝實錄』 英祖 卽位年 10月 3日(癸酉) 卷1. 冊41. p.412.

19) 『朝鮮王朝實錄』 英祖 卽位年 10月 8日(戊寅) 卷1. 冊41. p.414.

20) 『朝鮮王朝實錄』 英祖 卽位年 12月 27日(丙申) 卷2. 冊41. p.449.

21) 『朝鮮王朝實錄』 英祖 1年 1月 5日(甲辰) 卷3. 冊41. p.454.

22) 『朝鮮王朝實錄』 英祖 1年 1月 28日(丁卯) 卷3. 冊41. p.468.

23) 『朝鮮王朝實錄』 英祖 1年 2月 2日(庚午) 卷3. 冊41. p.469.

24) 『朝鮮王朝實錄』 英祖 1年 2月 19日(丁亥) 卷3. 冊41. p.473.

25) 『朝鮮王朝實錄』 英祖 1年 3月 13日(辛亥) 卷4. 冊41. p.487.

하지 마라)’까지 읽었다.<sup>26)</sup> 6월은 더위로 인해 휴강하였다. 7월은 17, 27일 2회 실시하였으며, 동월 17일에 『論語』를 완독하고 『孟子』를 읽기 시작하였다. 특진관 李宜顯, 지경연 申思喆 등이 참여하였다.<sup>27)</sup> 8월은 3회(3일, 4일, 28일)로 3, 4일에는 참찬관 柳復明, 검토회관 李秉泰와 함께했으며, 28일엔 이조 참관 李緯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 경연동지사로서 입실하여 『孟子』 <梁惠王> 章句上 7절 ‘齊宣王’ 부분을 왕과 강독하고 해설하였다.<sup>28)</sup> 9월에는 7회(3, 4, 6, 11, 12, 16, 26일), 10월은 4회(2, 3, 4, 7일), 11월은 27일과 28일 2회로 검토회관 徐宗伋, 지경연 洪致中 등과 함께 『孟子』를 읽고 그 문의에 대해서 토론하였으며, 12월은 휴강하였다. 영조 2년(1726)의 주강은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휴강하고, 2월부터 시작하였다. 2월의 주강은 2회(10일과 22일), 3월은 5회(11, 13, 21, 22, 26일)로 시독관 尹心衡과 함께하였다. 4월은 5일과 24일 시강관 金龍慶, 5월은 4회(11, 25, 27, 29일), 6월은 여름철인데도 휴강하지 않고 5회(2, 5, 9, 11, 17일)를 독서하였으며, 동월 17일에 영부사 閔鎰遠과 문장의 의미를 논하기도 하였다. 그 내용을 대략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민진원: (전략) 말씀하시는 사이에 대략 박절할 언론이 많아서 禮로 대하는 도리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대개 聖人이 德이 높을수록 마음을 더욱 낮추어서 오직 어진 선비를 잃고 좋은 말을 듣지 못할까 두려워함은 이러한 까닭입니다. 어찌 억지로 혐의를 피하는 태도를 짓겠습니까?  
영조: 工夫가 아직 미진하여 말씨의 조화롭지 못함을 초래하곤 하는데, 이는 실로 나의 병통이다. 어찌 스스로 알지 못하겠는가? 大臣의 말을 잘 지키겠다.”<sup>29)</sup>

위 대화에서는 초기 영조의 말씨가 禮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자, 영조는 공부가 부족함이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7월부터 8월 28일까지 휴강하고 29일 1회 실시하면서 경연관 韓元震과 ‘敬’자에 대해 논하였다.<sup>30)</sup> 9월은 11, 25일 2회로 영조는 경연관 韓元震과 함께 『孟子』 <萬章篇>을 읽고, ‘曾子와 大舜의 처지’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토론이 시작되었다.<sup>31)</sup> 10월은 10, 18일 2회 宣政殿에서 실시하고, 11월 5회(5, 16, 18, 21, 27일), 12월은 6일과 13일 2회 실시하였다. 영조 3년(1727)도 작년처럼 1월은 휴강하였으며, 2월은 3회(8, 9, 22일) 위 주강을 열었는데, 8일에는 『孟子』, 9일엔 『心經』을 읽었다. 당시 영조는 『心經』을 읽으면서 문답한 내용을 보면,

“영조: 마음의 役割은 思이다. ‘思’ 자가 克念의 ‘念’ 자와 그 뜻이 같은 것인가?  
동지중추부사 尹鳳朝: 대체로 같은 듯하나, ‘思’ 자가 ‘念’ 자에 비해 그 뜻이 더욱 깊습니다.  
부제학 李秉泰: ‘物交物’이라 한 말이 가장 적절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귀가 소리에 있어서와 눈이 빛깔에 있어서와 입이 맛에 있어서와 四肢가 安逸에 있어서 어느 것이나 반드시 만나지게 된 다음에는 바야흐로 그것에 끌리어 옮겨 가게 되는 법이니, 마땅히 들을 것을 듣고 마땅히

26) 『朝鮮王朝實錄』 英祖 1年 5月 17日(甲寅) 卷6. 冊41. p.517.  
27) 『朝鮮王朝實錄』 英祖 1年 7月 17日(壬子) 卷7. 冊41. p.538.  
28) 『朝鮮王朝實錄』 英祖 1年 8月 28日(癸巳) 卷7. 冊41. p.550.  
29) 『朝鮮王朝實錄』 英祖 2年 6月 17日(戊寅) 卷 9. 冊41. p.594.  
30) 『朝鮮王朝實錄』 英祖 2年 8月 29日(戊子) 卷10. 冊41. p.602.  
31) 『朝鮮王朝實錄』 英祖 2年 9月 11日(庚子) 卷10. 冊41. p.604.

볼 것을 보는 것은 이것이 모두 생각해 본 다음에야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저 생각해 보지 않으면 外部의 物欲과 交습하여 문득 하나의 물욕이 되어버리는 것이니, ‘思’자는 ‘求放心’의 ‘求’자와 같이 바로 공부를 해야 할 곳입니다.”<sup>32)</sup>

이와 같은 질문은 앞으로도 자주 일어나게 된다. 위 문장에서 영조는 ‘思’와 ‘念’의 의미를 질문하면서 토론이 시작된 것이다. 영조는 이 후 『心經』을 중단하고 2월 22일에도 다시 『孟子』를 읽고 부제학 李秉泰와 함께 읽고 토론하였다. 당시 그들은 ‘不可磯’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였는데,<sup>33)</sup> 이는 『孟子』의 <告子> 하편 3절에서 『詩經』 <邶風>의 篇名인 ‘凱風’과 <小雅>의 篇名인 ‘小弁’에 대해서 토론한 것이다. 3월은 4회(4, 10, 14, 15일)로 10일 검토관 洪聖輔는 ‘官事無攝(관청의 일을 검직하지 않는다)’이란 문장에 대해서 “대개 攝이란 검임함이니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검임하는 것을 이르는 것입니다.(중략)”라고 설명하고, 李秉常은 ‘善惡’에 대해서 설명하였다.<sup>34)</sup> 이는 『孟子』 <告子> 하편 7절에 있는 글이다. 윤3월엔 7회(4, 5, 9, 14, 15, 26, 28일), 4월은 5회(1, 3, 13, 16, 25일)로 『孟子』를 완독하였다. 『孟子』를 1년 7월부터 3년 4월까지 읽었으므로 1년 9개월이 소요된 것이다. 5월부터는 『中庸』을 선정하여 4회(1, 6, 12, 14일) 독서하였으며, 동월 1일 지경연사 沈宅賢, 검토관 趙明翼과 함께 영조는 다음과 같은 문답을 하였다.

“영조: 註도 빠짐없이 강독해야 하느냐?

沈宅賢: 『中庸』과 『大學』은 다른 책과 달라서 註도 빠짐없이 강독해야 합니다. 이것은 옛 부터 내려오는 관례입니다.”<sup>35)</sup>

그동안 大文만 읽다가 『中庸』의 독서 방법 및 범위에 대해 질문하고, 그 방법대로 6일부터는 시독관 申魯 등과 함께 독서하였으며, 6월에는 무더위로 휴강하고, 7월엔 19일 1회만 참찬관 宋寅明, 검토관 姜樸 등과 함께하였다. 8월의 주강은 4회(2, 3, 5, 11일)로 시독관 吳命新, 9월에는 2일 1회, 10월은 6회(5, 10, 15, 19, 21, 23일)를 지경연사 沈壽賢, 이조판서 吳命恒, 검토관 趙鎭禧 등과 함께 『中庸』을 강독하였다. 11월은 3회(8, 9, 13일), 12월은 휴강하였다. 영조 4년(1728) 1월에는 5회(15, 17, 19, 23, 26일)로 유신 李匡輔, 姜樸 등과 강독하였으며, 2월에도 5회(8, 9, 18, 26, 28일) 독서하였는데, 9일엔 宣政殿에서 『書傳』을 읽었다. 18일에는 <舜典>을 읽으며, 權以鎭, 金東弼, 李宗城 등이 “璇璣玉衡”에 대해서 설명하였다.<sup>36)</sup> 그 후 3월부터 6월까지 단 1회도 주강을 실시하지 않았다. 7월엔 22일 1회만 시강관 趙迪命과 독서하였으며,<sup>37)</sup> 8월은 5회(1, 11, 19, 20, 23일), 9월은 4회(3, 5, 6, 9일)로 독서 범위는 『書經』의 <太甲篇>이었으며, 동지사 宋寅明, 검토관 申致謹 등이

32) 『朝鮮王朝實錄』 英祖 3年 2月 9日(丙寅) 卷11. 冊41. p.620.

33) 『朝鮮王朝實錄』 英祖 3年 2月 22日(己卯) 卷11. 冊41. p.622.

34) 『朝鮮王朝實錄』 英祖 3年 3月 10日(丁酉) 卷11. 冊41. p.624.

35) 『朝鮮王朝實錄』 英祖 3年 5月 1日(丙辰) 卷11. 冊41. p.633.

36) 『朝鮮王朝實錄』 英祖 4年 2月 18日(己亥) 卷15. 冊42. p.10.

37) 『朝鮮王朝實錄』 英祖 4年 7月 22日(辛未) 卷18. 冊42. p.73.

함께하였다. 10월부터 12월까지 주강은 없었다. 영조 5년(1729) 1월에는 우의정 李台佐가 왕의 정신 수양을 위해 주강을 정지하고 소대만 행할 것을 권유한 관계로 주강에서의 독서는 없었다.<sup>38)</sup> 2월 들어 3회(8, 10, 21일) 주강을 실시하였으며, 『書經』 <周誥>와 <盤庚>편을 검토관 尹光益, 특진관 趙顯命, 지경연 金東弼, 시독관 李宗城 등과 함께하였다. 3월은 7회(6, 7, 11, 12, 18, 20, 21일)의 주강을 열어 『書經』의 <說命>까지 읽었다. 그리고 4월에는 4회(12, 13, 19, 21일)를 실시한바 12일에는 무신 李行儉이 참석하였으며, 23일에는 주강을 열라고 명을 내렸으나 경연관이 이유 없이 나간 탓으로 독서는 취소되었으며, 그 파장으로 인해 경연관은 파직당하기도 하였다.<sup>39)</sup> 5월의 주강은 4회(6, 11, 13, 14일)로 특진관 李森, 朴師洙, 동지사 宋寅明 등이 참여하였다. 6월은 2일과 3일 2회 실시하였으며, 7월은 휴강하고, 윤 7월엔 6회(16, 17, 18, 21, 23, 28일), 시독관 趙迪命, 특진관 李廷濟, 지경연사 尹淳 등이 참여하였으며, 그 후 며칠간 휴강하고 독서를 하지 않았다. 그 관계로 경연관 李宗白, 李萬維 등이 경연을 재개하도록 권유하기도 하였다. 이에 영조는 수일간 경연을 열지 못함을 두렵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유 없이 휴강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계속된 건의에 영조는 경연관들이 휴강하게 된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함을 원망하기도 하였다. 즉, “經筵의 직책에 있으면서 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야 오히려 어찌 말할 것이 있겠는가? 지난봄 이후로 黨齟에 빠진 彼此의 사람들이 혹은 意圖를 바꿀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도로 전과 같은 짓을 하고 있다. (후략)”<sup>40)</sup> 이는 곧 신하들의 당파논쟁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여 잠시 휴강한 것으로 생각된다. 8월은 4회(2, 3, 20, 23일), 9월은 6회(3, 11, 12, 21, 26, 28일), 10월은 22일과 23일 2회로 시독관 柳儼, 검토관 任珽 등과 함께하였으며, 11월과 12월은 휴강하였다. 영조 6년(1730) 1월엔 23일과 25일 2회, 2월은 14일 1회, 3월은 5일 1회의 주강을 열어 시독관 趙明翼 등과 함께 <無逸篇>을 읽었으며,<sup>41)</sup> 4월은 13일과 14일 2회만 실시하고, 12월까지 휴강하였다. 11월 2일엔 주강을 열려고 했으나 경연관들이 갖추어지지 않아 중단하였다.<sup>42)</sup> 영조 7년(1731)은 1월 28일 1회, 2월은 휴강, 3월은 26일과 27일 2회, 4월은 3회(2, 12, 29일)를 실시하였다. 4월 29일의 주강에서는 玉堂 李顯謨가 『書傳』이 거의 완독단계에 있으므로 다음 책으로는 『詩傳』을 읽어야 하나 당시는 居喪 중이라 하여 『禮記』를 선정하여 읽도록 하였다.<sup>43)</sup> 5월엔 3회(6일, 18일, 20일)를 동지사 宋寅明, 수찬 尹東衡과 함께 『書傳』 <畢命>을 강독하였다.<sup>44)</sup> <畢命>은 『書傳』 卷10 <周書>의 章이다. 6월은 2일 1회, 7월은 휴강, 8월은 9일 1회로 『書傳』을 완독하고, 9월은 휴강하였다. 10월부터 4월에 선정한 『禮記』를 4회(7, 9, 19, 20일)를 시독관 權懋, 지사 金在魯 등과 함께

38) 『朝鮮王朝實錄』 英祖 5年 1月 15日(庚申) 卷21. 冊42. p.99.

39) 『朝鮮王朝實錄』 英祖 5年 4月 24日(戊戌) 卷22. 冊42. p.124.

40) 『朝鮮王朝實錄』 英祖 5年 8月 9日(辛亥) 卷23. 冊42. p.145.

41) 『朝鮮王朝實錄』 英祖 6年 3月 5日(癸酉) 卷25. 冊42. p.190.

42) 『朝鮮王朝實錄』 英祖 6年 11月 2日(丁卯) 卷28. 冊42. p.233.

43) 『朝鮮王朝實錄』 英祖 7年 4月 29日(辛酉) 卷29. 冊42. p.254.

44) 『朝鮮王朝實錄』 英祖 7年 5月 18日(庚辰) 卷29. 冊42. p.256.

강독하였으며, 『禮記』를 읽는 중 영조는 이 분야에 능통한 인물을 추천하도록 하였다. 이에 金在魯는 李緯를 추천하였다.<sup>45)</sup> 10월 20일에는 『禮記』 <下卿位章>을 읽었으며,<sup>46)</sup> 11월은 5회(10, 12, 13, 17, 18일)로 12일부터 『禮記』 <國君死社稷章>을 시독관 李宗白, 특진관 李廷濟, 지사 金在魯, 검토관 任珽 등과 함께 하였다. 12월은 휴강하였다. 영조 8년(1732)의 주장은 1월에 6회(12, 13, 21, 22, 26, 27일)를 지경연사 宋成明, 시독관 李宗白, 특진관 李德壽와 독서하였으며, 2월은 4회(22, 25, 27, 28일), 3월은 6회(12, 17, 21, 26, 27, 28일)를 실시하였다. 동월 28일 당시 교리 權懋는 영조에게 상소를 올렸는데, 그 내용 중,

“前略) 경연에서는 임금의 덕을 성취하도록 해야 하는데, 책을 펴서 입으로 몇 번 읽다가 과하고, 아랫사람을 다름에 있어서는 사기를 꺾고 엮어매어 반드시 곤궁한 지경에 빠뜨리고,黜陟은 옳고 그름을 추구하지 않고 단지 이쪽저쪽 번갈아 기용한 것에만 힘쓰십니다.”란 글이 있다.<sup>47)</sup>

이는 경연에서 영조의 독서행태가 잘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상소로 인해 權懋는 大靜縣監으로 강등되었다. 4월에는 6회(3, 4, 13, 16, 17, 19일), 5월은 휴강, 윤5월은 4회(8, 10, 12, 13일)를 시강관 李宗城, 검토관 李滄, 지사 宋寅明 등과 함께하였으며, 6월부터 8월까지 휴강하고, 9월엔 3일 1회 독서하고 12월까지 휴강하였다. 영조 9년(1733)은 1월부터 4월까지 한 번도 주장을 실시하지 않았다. 1월 25일엔 靈城君 朴文秀가 일진 경연에서 언성을 높이고 임금의 얼굴을 쳐다봤다하여 추고 당하자 朴文秀가 반박하기를,

“故事を 보면 經筵席에서 大臣은 꿇어앉고 宰臣은 손을 잡고 반만 구부리게 되어 있지, 일찍이 俯伏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요즈음 조정의 정국이 자주 바뀌게 되어 조정의 신하들이 겁을 먹고 모두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엎드립니다. 임금과 신하는 아비와 자식 같은 것인데, 아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본다고 하여 도리어 무슨 손상이 되겠습니까?” 하였다.<sup>48)</sup>

이 글에서 당시 영조와 경연관의 독서풍경을 잘 알 수 있다. 4월까지 휴강한 영조는 5월에는 총 9회(11, 12, 13, 14, 18, 21, 26, 27, 28일)의 주장을 열었다. 5월 12일에는 훈련대장 張鵬翼이 특진관으로 입시하였으며, 宋寅明, 참찬관 徐宗玉 등과 『禮記』를 읽었다. 그 후 다시 6월부터 8월까지 휴강하고 9월은 8회(5, 6, 12, 14, 15, 17, 18, 19일)를 독서하였는데, 지경연사 金在魯, 尹游, 영경연 徐命均, 특진관 朴文秀, 동경연 宋寅明, 참찬관 韓德全 등과 함께 『禮記』를 읽었다. 10월은 5회(18, 21, 22, 23, 27일)였으며, 동월 18일 죽아에서 영조는 『禮記』 <曾子問篇>을 읽다가 ‘임금이 죽고世子가 탄생하였다.’는 데 이르러 목이 메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는 영조가 독서에 심취하여 감정에 치우쳤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宋寅明, 兪最基 등은 이 篇을 계속해서

45) 『朝鮮王朝實錄』 英祖 7年 10月 19日(己酉) 卷30. 冊42. p.281.

46) 『朝鮮王朝實錄』 英祖 7年 10月 20日(庚戌) 卷30. 冊42. p.281.

47) 『朝鮮王朝實錄』 英祖 8年 3月 28日(乙酉) 卷31. 冊42. p.301.

48) 『朝鮮王朝實錄』 英祖 9年 1月 25日(丁未) 卷33. 冊42. p.330.

읽으면 슬픔만 더할 뿐이고 이로울 것이 없으니 중단하기를 청하였다.<sup>49)</sup> 이에 21일에는 <曾子問篇>의 독서를 중단하고, 검토관 吳瑗과 함께 <文王世子篇>을 읽었다.<sup>50)</sup> 감정이 넘쳐 눈물을 흘린다 하여 독서를 중단시키는 건 자신들만의 독법일지 모르나 왕은 왕 나름대로의 수동적인 독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영조는 23일 주장에서도 『禮記』의 내용 중 ‘한 사람의 元良’이라는 구절에 이르러 임금이 훌쩍거리고 울며 말하기를, “이 元良이라는 글을 보고 國本을 돌이켜 보며 지난 일을 생각하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슬픈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고 했다.<sup>51)</sup> 영조는 점차적으로 글 속으로 빠지면서 독서했다고 볼 수 있다. 11월엔 6회(1, 7, 19, 23, 24, 28일)로 지사 尹游, 검토관 趙尙命, 尹得和, 吳瑗, 특진관 朴乃貞, 李眞淳 등과 함께 하였으며, 23일엔 『禮記』 내용 중 ‘穀地’의 뜻으로 논란을 벌이기도 하였으며, 12월은 휴강하였다. 영조 10년(1734)의 주장은 1월에 휴강하고, 2월은 3회(4, 5, 18일)를 실시하였는데, 동월 4일 영조는 시독관 尹得和와 『禮記』를 읽으면서,

“『禮記』에, ‘天子는 한 번 먹고는 배부르다 하고, 諸侯는 두 번, 大夫와 士는 세 번 먹어서 배부르다고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벌어들여 먹고 사는 사람은 수없이 먹는다.’고 했는데, 자신의 힘으로 벌어들여 먹고 사는 사람이란 農, 工, 商賈가 그것이다. 이런 것을 살펴보면 특별히 느낌이 있게 된다. 따라서 나의 경우는 點心을 먹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농·공·상고의 부류들은 먹는 데 수가 없이 하여야 하는데도 근년 이래로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니, 백성의 부모가 된 처지에 있는 심사로 어찌 부끄러움이 없겠는가?” 하였다.<sup>52)</sup>

이와 같이 영조가 자신이 먼저 술선수범하여 점심을 굶겠다고 한 것과 2월 5일에 사치스러운 풍속을 개혁하려고 더러워진 의대, 떨어진 신발, 신하들이 앉는 돛자리가 떨어져도 바꾸지 않았다는 것도 모두 독서의 힘으로 볼 수 있다. 3월은 14일, 25일, 26일까지 3회 중 25일 지사 尹游가 鄭齊斗를 경연에 추천하였다.<sup>53)</sup> 4월의 독서는 4회(18, 19, 21, 22일)였으며, 동월 19일 참찬관 李宗城이 앞으로 『禮記』한 두 편만 정선하여 강독하고, 다음 책으로 『詩傳』을 추천하였다.<sup>54)</sup> 영조는 타의에 의하여 選讀을 택하였다. 21일엔 『禮記』의 <坊記>를 선택하여 읽었다. ‘利와 祿은 死者에게 먼저 한다.’는 조문에 이르러 영조는 무신년(1728, 영조 4년)에 공을 세우고 죽은 자에게 먼저 하도록 하였다.<sup>55)</sup> 이를 볼 때 영조는 독서하면서 실천의 미덕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된다. 5월은 7회(1, 2, 13, 16, 21, 22, 25일)로 13일 참찬관 李宗城이 날씨가 더운 관계로 주장의 시간을 일찍 하자고 청하자 巳時(9-11시)로 결정한 뒤 다시 辰時(7-9)로 하였다.<sup>56)</sup> 또한 25일에 경연 방식을 ‘임금이 전에 배운 것을 소리 내어 한번 읽고 解釋은 읽지 않으며, 새로 배울 것은 소리 내어 한 번 읽고 단지 大文만

49) 『朝鮮王朝實錄』 英祖 9年 10月 18日(丙寅) 卷36. 冊42. p.385.

50) 『朝鮮王朝實錄』 英祖 9年 10月 21日(己巳) 卷36. 冊42. p.385.

51) 『朝鮮王朝實錄』 英祖 9年 10月 23日(辛未) 卷36. 冊42. p.385.

52) 『朝鮮王朝實錄』 英祖 10年 2月 4日(庚戌) 卷37. 冊42. p.418.

53) 『朝鮮王朝實錄』 英祖 10年 3月 25日(辛丑) 卷37. 冊42. p.427.

54) 『朝鮮王朝實錄』 英祖 10年 4月 19日(甲子) 卷38. 冊42. p.432.

55) 『朝鮮王朝實錄』 英祖 10年 4月 21日(丙寅) 卷38. 冊42. p.433.

56) 『朝鮮王朝實錄』 英祖 10年 5月 13日(戊子) 卷38. 冊42. p.436.

해석한다.’는 내용이 館中の 板에 새겨졌으므로 이 독서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sup>57)</sup> 즉, 복습은 음독 한 번, 예습도 음독 한 번씩 읽고 註는 읽지 않는다는 독서방식이다. 이러한 독서방식은 숙종 때도 尹鑄의 대문 독서와 金錫胄의 註까지 읽어야 한다는 설전이 있었으나 尹鑄의 주장대로 大文만 읽도록 하였다.<sup>58)</sup> 6월은 6회(3, 10, 11, 12, 13, 14일), 7월 휴강, 8월 6회(1, 6, 7, 11, 26, 29일) 모두 『詩傳』을 읽었다. 『禮記』는 영조 7년(1731) 10월부터 읽기 시작하여 10년(1734) 6월까지 3년 가까이 읽었으나 완독하지 못하고 選讀으로 마치고, 『詩傳』을 읽은 것이다. 9월의 주강은 7회(1, 6, 9, 10, 11, 12, 18일), 10월은 17일과 18일 2회, 11월은 23일, 27일 2회, 12월은 10일 1회로 마감하였다. 영조 11년(1735) 1월은 휴강, 2월은 5회(14, 15, 18, 22, 25일)로 지경연사 宋寅明, 시강관 金若魯, 동경연사 趙顯命, 특진관 李眞淳 등이 함께하였다. 3월은 휴강하고, 4월은 19일과 21일 2회, 윤4월은 11회(18, 19, 20, 21, 22, 23, 24, 25, 27, 28, 29일)로 최근 가장 많은 독서 횟수를 보였다. 독서 자료는 역시 『詩傳』으로 18일엔 <白駒章>을 읽었다. 5월과 6월은 휴강하고, 7월은 6회(12, 22, 23, 24, 25, 26일), 8월은 3회(3, 9, 19일), 9월도 휴강하고, 10월은 4회(22, 23, 27, 28일)의 주강을 열어 동월 22일까지 『詩傳』 <思齊章>을 읽었으며, 11월, 12월은 휴강하였다. 영조 12년(1736)의 주강은 1월에 휴강하고, 2월은 4회(22, 25, 26, 28일)로 동월 26일엔 『詩傳』 <大雅篇> 公劉章을 읽었으며, 3월은 11일과 12일 2회로 <大雅篇> 抑章을 특진관 趙顯命과 같이 강독하였다. 동월 25일엔 주강을 행하려 했는데 부교리 閔亨洙가 부친 병 때문에 나가자 다른 경연관을 불렀으나 두 번씩이나 명령을 어기고 참여하지 않았다. 그 결과 尹敬龍을 高山察訪으로, 金相奭을 木川縣監으로 강등시켰다.<sup>59)</sup> 4월은 23일 25일 2회, 23일은 資政殿에서 <大雅篇> 桑柔章을 강독하였으며, 5월은 9회(2, 3, 5, 12, 13, 16, 25, 26, 27일)를 독서하였으며, 동월 3일부터는 날씨가 덥다하여 주강의 시간을 辰正(오전 8시)으로 정하였다.<sup>60)</sup> 영조 10년 5월에는 巳時와 辰時로 한 바 있는데 이번은 辰正에 하는 것을 규례로 삼은 것이다. 동월 13일에는 『詩經』 <周頌篇> ‘臣工章’을 읽으며 임금이 文義로 인하여 농사를 권장하는 정책을 거듭 申飭하도록 下諭하고, 각 도의 守令에게 명하여 굶주리는 백성이 없도록 구휼 하라고 하였다.<sup>61)</sup> 이와 같이 영조는 독서하면서 실천하는 면모를 보인 것이다. 26일에는 專經文臣 韓時泰에게, 27일엔 專經文臣 安正仁에게 시강하도록 하였다. 6월은 3일 1회, 7월과 8월은 휴강, 9월은 6회(14, 15, 19, 24, 25, 27일), 10월은 5회(4, 7, 21, 22, 23일), 11월은 8회(4, 5, 7, 17, 22, 23, 24, 26일)의 주강을 실시하였다. 동월 5일엔 주강에서 동경연 李德壽가 귀가 어두웠으므로 酬酌 하기가 어려워 임금이 주서를 시켜 써서 보여주기틀, “否泰가 서로 이어지는 것은 歷代의 연혁으로 보아 당연한 이치이니, 어찌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漢나라와 唐나라가 망한 것은 獻帝와 昭宣帝의 죄가 아니겠는가?”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sup>62)</sup> 17일엔 시독관 兪健基, 검토관 趙尙命, 참찬관

57) 『朝鮮王朝實錄』 英祖 10年 5月 25日(庚子) 卷38. 冊42. p.438.

58) 『朝鮮王朝實錄』 肅宗 1年 1月 18日(丁丑) 卷2. 冊38. p.237.

59) 『朝鮮王朝實錄』 英祖 12年 3月 25日(己未) 卷41. 冊42. p.499.

60) 『朝鮮王朝實錄』 英祖 12年 5月 3日(丙申) 卷41. 冊42. p.503.

61) 『朝鮮王朝實錄』 英祖 12年 5月 13日(丙午) 卷41. 冊42. p.505.

金若魯 등과 『周易』 <同人卦>을 읽었으며, 22일 영조는 <大有卦>를 읽고 경연관들에게 다음과 같은 느낌을 말하였다.

“내가 실로 이 卦에서 느끼는 점이 있다. 사람이 어찌 자신을 모르겠는가? 나는 지성으로 아랫사람을 대하고 있으므로, 서로 미덥게 하는 도리에 있어서 스스로 부끄러울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은 위엄을 견지하는 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강이 날로 퇴폐해지고 있으므로 비록 성심을 다하여 감화되는 바가 있기를 기대하였으나, 여러 신하들은 黨習에 얽매어 뜻을 거스르며 받아들이를 어렵게 여긴 채 모두 스스로, 나에게도 집착한 것이 마음속에 있다고 여기고 있다.(후략)<sup>63)</sup>”

위의 글은 봉당의 폐습을 버리지 못하는 신하들에게 일침을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독서를 통해 자신의 수양은 물론 왕정을 펼치는데 좋은 기회였던 것이다. 23일에는 『周易』 <謙卦>를 읽고 李德壽와 토의하였다. 12월은 1일 하루 李德壽와 독서하고 12년을 마무리 하였다.

이상으로 영조 초기 12년간의 주장에서의 독서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영조 1년은 재위 초기라 자주 독서를 하지 못했다. 매월 조금씩 독서한 결과 1년의 총 횟수는 49회로 읽은 책은 『論語』와 『孟子』였으며, 영조 2년에는 총 30회로 읽은 책은 『孟子』, 영조 3년(1727)에는 38회, 『孟子』, 『心經』, 『中庸』을 읽었으며, 이 중 『心經』의 경우 2월 9일 단 1회만 읽었다. 영조 4년(1728)에는 20회 모두 『書經』을 읽었으며, 5년(1729)은 38회, 6년(1730)은 6회, 7년(1731)은 20회로 읽은 책은 『書傳』과 『禮記』였다. 8년(1732)의 주장은 총 27회, 9년(1733) 28회, 읽은 책은 『禮記』, 10년(1734)은 41회의 독서로 『禮記』와 『詩傳』, 11년(1735)의 독서 횟수는 31회로 『詩傳』, 12년(1736)은 38회로 읽은 책은 『詩傳』이었다.

### 3.2 中期의 讀書

중기의 독서일정은 편의상 영조 13년(1737)부터 32(1756)년까지의 일정으로 구분하였다. 향후 20년간 영조의 독서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3년(1737) 1월은 11일 하루 독서하였다. 지경연 宋寅明이 나이가 한 살이 높아졌으니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는 건의로 영조는 “시간을 아끼는 도리가 어찌 나이가 많고 적은 데 따라 다르겠는가? 그러나 경의 말이 이러하니, 내일은 停講하도록 하겠다.” 하여<sup>64)</sup> 그 후부터 3월까지 주장이 없었다. 4월에는 17일과 18일 2회 실시하였는데, 18일에는 영조의 왼쪽 팔뚝에 발생한 痰核이 갑자기 통증을 일으켰어도 독서를 계속하였다.<sup>65)</sup> 그 후 휴강하였다가 5월 들어 3회(27, 28, 30일) 주장을 열었다. 27일엔 칙사를 맞이할 음악문제를 宋寅明과 논의하였으며, 28일엔 <大過卦>를 읽었다. <大過卦>

62) 『朝鮮王朝實錄』 英祖 12年 11月 5日(甲午) 卷42. 冊42. p.522.

63) 『朝鮮王朝實錄』 英祖 12年 11月 22日(辛亥) 卷42. 冊42. p.525.

64) 『朝鮮王朝實錄』 英祖 13年 1月 11日(庚子) 卷43. 冊42. p.534.

65) 『朝鮮王朝實錄』 英祖 13年 4月 18日(丙子) 卷43. 冊42. p.545.

는 『周易』 64괘중 28번째 괘명이다. 6월은 22일 1회 독서하고 휴강하였다. 이 날 검토관 李鼎輔가 『東賢奏議』가 君德의 闕失과 時政의 利害 등 불거리가 많다하여 영조에게 추천하였다.<sup>66)</sup> 7월부터 8월 19일까지 휴강하고 8월 20일부터 재개하였다. 8월의 주강은 20일, 27일, 29일까지 3회 실시되었으며, 20일에 <遯卦>를 읽었다. 이 괘는 『周易』 64괘 중 33번째 괘명이다. 9월은 6회(1, 11, 12, 14, 18, 27일), 윤9월에도 6회(3, 14, 16, 18, 23, 28일)로 지사 趙顯命, 검토관 趙榮國 등과 함께하였다. 10월은 7회(2, 3, 4, 7, 18, 21, 22일) 주강을 열어 독서하였다. 18일에는 대신들과 함께 다음에 읽어야 할 책을 선정하였다. 주강은 『春秋集傳』을 강독하고 이어서 『心經』과 『近思錄』을 진강하며, 召對에서는 『大學衍義補』를, 이어서 『朱子語類』를 강독하기로 하였다.<sup>67)</sup> 그러나 바로 독서를 하지 않고 11월 13일 하루 하고 12월까지 휴강하였다. 영조 14년(1738)의 주강은 1월의 경우 4회(22, 24, 26, 27일)로 시독관 鄭益河가 참여했으며, 2월은 3일 1회하고 3월까지 휴강하였다. 4월은 4일과 5일 2회, 5월은 21일 1회하고 6월 휴강, 7월 29일 1회하고 8월 휴강, 9월은 5회(5, 6, 12, 21, 24일) 실시하였다. 10월은 4회(8, 9, 19, 28일)를 독서한바 9월에 부수찬 吳遂采와 『春秋集傳』을 읽고 校穴을 주조에 대해 논의하였다.<sup>68)</sup> 11월은 3일 1회 실시하고 12월까지 휴강하였다. 15년(1739)의 1월은 11일, 13일, 14일까지 3회 주강을 실시하였다. 동월 11일은 참찬관 徐宗玉이, 13일과 14일에는 지경연 尹淳과 文義를 설명하였다. 2월은 휴강하고, 3월은 11일 하루 하고, 다시 4월 27일까지 휴강, 4월 28일 주강을 재개하였다. 5월은 15일과 18일 2회, 6월은 5회(2, 3, 4, 10, 11일)로 지경연사 洪鉉輔, 특진관 尹容 등이 참여했으며, 그 후 7, 8월은 휴강하였다. 9월은 12일, 14일 2회하고, 10월 휴강, 11월은 3회(21, 24, 25일)와 12월 1일 1회는 시강관 李德重과 『春秋集傳』을 읽고 한 해를 마무리 하였다. 영조 16년(1740)의 주강은 1월부터 2월 24일까지 휴강하고, 2월 25일 1회, 3월 12일, 19일, 21일까지 3회 『春秋集傳』을 읽었다. 4월은 6회(11, 18, 19, 25, 26, 29일) 독서 중 11일에 『大學衍義補』를 시독관 兪最基와 읽고, 18일 이후에는 다시 『春秋集傳』을 지사 權禎, 시독관 洪鳳祚 등과 함께하였다. 5월은 2일과 6일 2회, 6월은 3회(11, 12, 17일), 7월은 21일과 30일 2회를 우의정 宋寅明, 洪象漢 등과 함께 독서하였다. 8월은 4회(2, 5, 10, 20일)로 검토관 金尙迪과 함께하고, 9월도 4회(9, 16, 25, 28일)를 宋寅明, 검토관 李天輔 등이 참여하였으며, 10월은 9일 하루 독서하였다. 이 전에 10월 2일에 주강을 열어 독서하려 했으나 경연관들이 불려도 오지 않아 취소되고 말았다. 결국 영조는 화가 나서 “기강이 헤이해져 패초를 어기는 것이 날로 더욱 심해지고 있다. 임금은 의관을 정제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신하는 오만하게 어기는 짓을 일삼고 있다. 하루에 여섯 번 牌招했다는 것은 일찍이 들어 보지 못한 일이니, 여섯 번 패초를 어긴 자는 機張縣監으로 보임하여 내어 보내라.” 하였다.<sup>69)</sup> 왕권제도 하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근거이다. 11월은 7일과

66) 『朝鮮王朝實錄』 英祖 13年 6月 22日(己卯) 卷44. 冊42. p.555.

67) 『朝鮮王朝實錄』 英祖 13年 10月 18日(壬寅) 卷46. 冊42. p.577.

68) 『朝鮮王朝實錄』 英祖 14年 10月 9日(戊子) 卷47. 冊42. p.605.

69) 『朝鮮王朝實錄』 英祖 16年 10月 2日(己亥) 卷52. 冊42. p.682.

8일 양일간 시독관 鄭翬良과 함께 『春秋集傳』을 읽고 12월까지 휴강에 들어갔다. 영조 17년(1741)의 주장은 1월초부터 중순까지 휴강하고, 21일 부터 24일까지 4회로 검토관 鄭翬良 등과 주장을 실시하였으며, 2월은 6회(8, 9, 14, 15, 18, 29일)를 실시하였다. 동월 9일엔 지경연사 李德壽와 『春秋集傳』을 읽은 다음 朋黨에 대해 토론하였으며,<sup>70)</sup> 15일의 주장에서는 문신 30세 이상에게 漢語를 강독하게 하고, 40세 이하에게 吏文을 강하도록 하였다.<sup>71)</sup> 3월은 5회(16, 19, 20, 26, 27일)로 책을 읽은 다음 朋黨破壞와 蕩平策이 주요 논점이었다. 4월은 7회(4, 10, 11, 13, 19, 21, 22일), 5월은 1일 1회로 文衡 李德壽에게 『五禮儀』의 궁전 이름과 교량 이름을 수정하도록 하였다. 6월은 6회(5, 9, 11, 13, 20, 21일), 7월은 4회(15, 16, 19, 25일)로 참찬관 趙明履, 좌의정 宋寅明, 시독관 南泰齊 등이 참여하여 『心經』을 강독하였다. 『心經』은 4년 전인 13년(1737) 10월 18일에 대신들과 독서순서를 정한 대로 『春秋集傳』 완독 후 읽기로 한 책이다. 그 후 8월부터 9월까지 휴강하였으며, 10월 3회(8일, 20일, 22일) 독서하고 다시 12월까지 휴강하였다. 영조 18년(1742)의 주장은 1월의 경우 4회(4, 6, 21, 22일), 2월은 14일 1회 실시하고 3월은 휴강하였다. 4월에는 8회(9, 11, 20, 21, 23, 24, 25, 26일)를 실시하였다. 9일에 『心經』의 내용에서 ‘敬’자를 찬선 魚有鳳이 풀이하였으며,<sup>72)</sup> 참찬관 鄭羽良, 동지사 金若魯, 특진관 朴文秀 등이 참여하였다. 5월부터 8월 27일까지 휴강하고, 8월은 28일과 29일 2회 주장을 시독관 鄭翬良 등과 실시하였으며, 9월은 12일, 15일, 18일 3회를 동경연 元景夏, 시독관 金尙迪, 鄭翬良 등과 『心經』을 읽었다. 10월은 4회(4, 5, 8, 18일) 독서하고 12월까지 휴강하였다. 영조 19년(1743) 1월은 11일 1회 『心經』을 읽으며 시독관 李成中 등과 ‘誠’자와 ‘知行’에 대해서 논하였다.<sup>73)</sup> 그 후 3월 26일까지 휴강하고, 3월 27일 주장에서 영조는 ‘性情’과 ‘求中’ 등에 대해서 시독관 李成中, 찬선 朴弼周와 열띤 토론을 하였다.<sup>74)</sup> 그 후 4월은 휴강하고, 윤4월에 16일 1회 실시한 뒤 11월 16일까지 휴강하다가 뒤 11월 17일에 『心經』을 읽었다. 그리고 다시 12월에 휴강하였다. 영조 20년(1744)의 주장은 1월 24일과 26일 2회였다. 동월 26일에는 영경연사 宋寅明과 ‘正心·誠意’에 대해서 논하였으며, 2월에도 21일과 29일 2회 실시하였다. 3월은 4회(5, 12, 20, 21일)로 동 5일에 특진관 權禧 과 논의하여 『性理大全』 판본이 희귀하고 지금 順天府에 있는 판본은 이지러져서 인출할 수 없으므로 完營에서 개수하여 인출하도록 하였다.<sup>75)</sup> 4월은 16일과 19일 2회, 동월 19일엔 교리 韓翼謨와 ‘七情’에 대해 논하였으며, 그 후 9월 10일까지 휴강하였다. 9월의 주장은 11일, 17일 2회, 11일에 주장에서 세자가 참석한 관계로 영조는 손수 세자를 위해 勸學文을 써서 세자빈객 金若魯에게 주면서 세자를 위해 설명하도록 했으며, 또한 세자에게 御製 『古鏡重磨方』을 읽게 하였다.<sup>76)</sup> 11월 4일엔 경연에서 강할 때 『周禮』를 읽는 것이 어떤지 의논하도록

70) 『朝鮮王朝實錄』 英祖 17年 2月 9日(甲辰) 卷53. 冊43. p.5.  
 71) 『朝鮮王朝實錄』 英祖 17年 2月 15日(庚戌) 卷53. 冊43. p.5.  
 72) 『朝鮮王朝實錄』 英祖 18年 4月 9日(戊戌) 卷55. 冊43. p.55.  
 73) 『朝鮮王朝實錄』 英祖 19年 1月 11日(丙寅) 卷57. 冊43. p.80.  
 74) 『朝鮮王朝實錄』 英祖 19年 3月 27日(辛巳) 卷57. 冊43. p.93.  
 75) 『朝鮮王朝實錄』 英祖 20年 3月 5日(癸未) 卷59. 冊43. p.128.

하였다. 좌의정 宋寅明과 우의정 趙顯命은 聖人이 제도를 만든 묘리를 엿볼 수 있으므로 『周禮』를 읽어야 한다 하였으며, 옥당관들은

“지금 신 등의 적은 학식과 천박한 식견으로 갑자기 자기 의견을 가지고 그 구두를 억지로 정하고 용렬하게 法講을 준비한다면, 事體의 소홀하고 간략함을 진실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땅히 本館의 영사와 외방에 있는 유신들에게 두루 물어 보아, 그 구절의 해석을 바로잡는 일을 아마 그만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미 이를 강하라고 명하였으니, 우선 그대로 『心經』을 강하게 하고, 『周禮』는 보류하여 의논이 정해지기를 기다린 뒤에 계속해서 강하는 것이 진실로 사의에 합당할 것입니다.”<sup>77)</sup>하였다.

그러나 영조는 좌상의 말대로 결정하고, 11월 7일부터 지경연사 李周鎭과 함께 『周禮』의 <天官篇>을 읽고 토론하였다.<sup>78)</sup> 11월은 8회(7, 8, 13, 21, 23, 26, 28, 29일)의 독서를 실시하였는데, 8 일엔 영경연사 趙顯命이 『周禮』의 의미와 영조가 『周禮』를 선정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28일 주장에서는 『續大典』을 교정하여 간행하도록 하였다. 12월에는 2일 1회 실시한바 당시 纂輯廳에서 『大訓』과 『五禮儀』와 『續大典』을 완성하고, 불에 탄 『承政院日記』는 私家에 日記草, 朝報政事, 三司의 爛報들을 참고하여 재편찬하도록 하였다.<sup>79)</sup> 영조 21년(1745)에는 작년 12월 3일부터 금년 1월 21일까지 휴강하고, 22일(1회)부터 『周禮』를 읽었다. 그리고 5월 17일까지 다시 약 3개월을 휴강하였다. 5월은 3회(18일, 20일, 28일), 6월도 3회(3일, 4일, 16일)의 주장을 열었으나 9월 18일까지 휴강하였다. 9월에는 19일과 21일 2회 실시하였는데 21일 주장에서는 지사 元景夏가 『尊王辨』이라는 책을 읽고 토론하였다.<sup>80)</sup> 10월은 23일 1회 실시하였으며, 28일에는 法講과 次對는 모두 便殿에서 행하되, 추위와 더위에도 똑같이 하고, 앞으로는 아무리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이라도 탈포하지 말 것을 『續大典』에 기재하도록 했다.<sup>81)</sup> 11월은 5일 1회, 12월은 25일 1회로 마감하였다. 영조 22년(1746)의 주장은 1월 13일 1회, 2월은 6회(8, 10, 15, 18, 27, 29일), 3월은 7회(14, 17, 18, 21, 25, 26, 27일)를 실시한바 21일에는 세자를 참석하게 하여 『史略』의 疑義에 대해 질문하기도 하였다. 윤3월은 5일 1회, 4월은 10회(3, 4, 9, 11, 12, 13, 21, 23, 24, 26일)까지 독서를 하였다. 5월은 5회(1, 2, 17, 19, 22일)로 <宜政殿>에서 독서하였으며, 6월부터 12월 18일까지 휴강하고 12월 19일 개강하여 26일 하루 더 독서하였다. 19일 시독관 尹鳳五와 『周禮』를 읽은 뒤 옥당을 개정하도록 하였다.<sup>82)</sup> 영조 23년(1747) 신년이 되자 며칠간 쉬었다가 1월11일 개강하여 『周禮』를 읽었다. 翁主의 친연두 때문에 며칠 만에 개강한 것이다.<sup>83)</sup> 그 후 24일에 한 번 더 주장을 열어 1월은 총 2회 정도 독서하였다. 2월은

76) 『朝鮮王朝實錄』 英祖 20年 9月 11日(乙酉) 卷60. 冊43. p.151.

77) 『朝鮮王朝實錄』 英祖 20年 11月 4日(丁丑) 卷60. 冊43. p.162.

78) 『朝鮮王朝實錄』 英祖 20年 11月 7日(庚辰) 卷60. 冊43. p.162.

79) 『朝鮮王朝實錄』 英祖 20年 12月 2日(乙巳) 卷60. 冊43. p.164.

80) 『朝鮮王朝實錄』 英祖 21年 9月 21日(庚寅) 卷62. 冊43. p.192.

81) 『朝鮮王朝實錄』 英祖 21年 10月 28日(丙寅) 卷62. 冊43. p.195.

82) 『朝鮮王朝實錄』 英祖 22年 12月 19日(庚辰) 卷64. 冊43. p.233.

83) 『朝鮮王朝實錄』 英祖 23年 1月 11日(辛丑) 卷65. 冊43. p.236.

4회(1, 8, 28, 29일)의 독서를 행하였으나 건강상 오래도록 하지 못했다. 오래 앉아 있는 것이 피곤하여 10여 차례 독서하다가 중단하곤 했다.<sup>84)</sup> 그 뒤 피로의 여파로 20여 일 휴강한 다음 28일 영조는 주강을 열라 명한 다음 大殿에서 오래도록 기다렸는데도 경연관들이 오지 않았다. 이에 영조는 연락해도 오지 않은 林錫憲을 結城縣監으로, 임집(任璵)을 洪原縣監으로 내쫓아 전보시키고, 趙明履를 부제학으로 임명하였다.<sup>85)</sup> 그리고 다음 날 29일에 趙明履와 『周禮』를 읽었다. 3월은 6회(6, 10, 11, 14, 18, 19일)를 독서했는데, 11일에 특진관 趙榮國과 『周禮』 ‘春官 冢人’ 부분을 읽고 토론하고, 18일은 <靛鞞章>을 시독관 尹光紹와 함께 읽고, 樂工에 대해서 얘기하였으며, 19일엔 세자를 참석하게 하여 『通鑑』의 總論을 읽도록 하였다.<sup>86)</sup> 4월의 주강은 24일과 25일 2회였으며, 동월 24일에 영조는 세자를 시강하게 하여 ‘물의 흐름과 봄에 새의 울음’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소감을 말하게 하고, 이에 비유하여 학문에 힘쓰도록 하였다.<sup>87)</sup> 5월은 13일 1회 실시한바 장소는 <歡慶殿>이었다. 영의정 金在魯가 정사 및 경연은 正殿에서 해야 하는데, <歡慶殿>에서 하는 뜻을 모르겠다고 하였다. 이에 영조는 동국의 거처가 가까워서 그 장소를 택했다 하면서 앞으로는 <熙政堂>에서 경연을 하겠다고 하였다.<sup>88)</sup> 그 후로 10월까지 5개월간 휴강에 들어갔다. 11월 다시 재개하여 4회(4일, 9일, 11일, 17일)를 실시하였다. 4일엔 冬至使 3명과 검토회관 李奎采, 시독관 徐志修 등과 『周禮』를 읽고, 사신들에게 명나라의 소식과 사정을 상세히 탐지하여 오라 하였다.<sup>89)</sup> 9일엔 <熙政堂>에서 주강을 하고, 11일에는 세자를 참석토록 하여 오랜 시간 동안 『小學』 중 ‘立教와 明倫’의 선후문제, ‘稽古’의 의미, ‘嘉言과 善行’이 稽古보다 뒤에 있는 이유, 『大學』의 八條目에서 格致를 먼저 삼은 이유 등에 대해 문답한 후 인재 등용에 신중하도록 하였다.<sup>90)</sup> 17일에는 시강관 金相福과 함께 독서토론 하고 휴강에 들어갔다. 영조 23년의 주강은 19회로 마무리 하였고, 읽은 책 역시 『周禮』였다. 영조 24년(1748) 1월은 휴강하고, 2월은 27일 1회로 시독관 尹光紹, 金尙喆, 참찬관 李宗迪 등과 『周禮』 <太師有師章>을 강독하면서 ‘獸와 禽’의 차이점에 대해 문답하였다.<sup>91)</sup> 3월의 주강은 5일과 17일 2회 실시하고 4월은 휴강하였다. 5월에는 25일과 27일 2회, 6월은 13일과 14일 2회를 실시하고 30년(1754)까지 6년 동안 단 1회도 실시하지 않았다. 그 원인은 영조 25년(1749) 2월부터 모든 정사를 세자에게 맡겼기 때문으로 보인다(대리청정). 영조 31년(1755)에 와서 2월 12일과 4월 2일 2회 실시하였다. 2월 12일은 동지경연 吳遂采 등과 <明政殿>에서 독서하고, 4월 2일에는 수찬 洪名漢, 승지 蔡濟恭 등과 『書經』 <堯典>을 읽었다.<sup>92)</sup> 이 후 다시 주강이 정지되었다. 이와 같이 주강이

84) 『朝鮮王朝實錄』 英祖 23年 2月 8日(戊辰) 卷65. 冊43. p.239.

85) 『朝鮮王朝實錄』 英祖 23年 2月 28日(戊子) 卷65. 冊43. p.242.

86) 『朝鮮王朝實錄』 英祖 23年 3月 19日(己酉) 卷65. 冊43. p.244.

87) 『朝鮮王朝實錄』 英祖 23年 4月 24日(癸未) 卷65. 冊43. p.246.

88) 『朝鮮王朝實錄』 英祖 23年 5月 13日(壬寅) 卷65. 冊43. p.247.

89) 『朝鮮王朝實錄』 英祖 23年 11月 4日(庚寅) 卷66. 冊43. p.269.

90) 『朝鮮王朝實錄』 英祖 23年 11月 11日(丁酉) 卷66. 冊43. p.269.

91) 『朝鮮王朝實錄』 英祖 24年 2月 27日(辛巳) 卷67. 冊43. p.282.

92) 『朝鮮王朝實錄』 英祖 31年 4月 2日(乙巳) 卷84. 冊43. p.570.

소홀해지자 옥당관들도 근무가 태만해졌다. 그것을 안 영조는 영조 32년(1756) 3월 28일 옥당관들을 심문하도록 하였다.<sup>93)</sup> 그러나 그 해 영조 32, 33년(1757)에도 주강은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이상 중기의 경우 13년부터 33년까지 주강에서의 독서 횟수는 총 246회로 읽은 책은 『周易』, 『春秋集傳』, 『心經』, 『周禮』 등으로 나타났다.

### 3.3 末期의 讀書

재위 25년(1749)부터 세자의 대리청정 관계로 거의 독서를 하지 않다가 영조 34년(1758) 중반에 이르러 비로소 독서를 시작하였다. 6월 15일 우의정 申晩과 함께 주강의 일정을 상의한 후 주강의 날을 1일, 11일, 21일 즉, 월 3회로 정하고, 그 동안 종신과 武臣이 참여했던 제도를 앞으로는 무신만 참석하도록 수정하였다.<sup>94)</sup> 그러나 주강의 일정을 월 3회로 정해놓고도 규정대로 실시하지는 못하였다. 다음 날 6월 16일부터 <涵仁亭>에서 『中庸』을 읽었던 사실만 봐도<sup>95)</sup> 날짜를 지키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22일은 『中庸』을 읽고 ‘慎獨’에 대해 얘기했으며, 30일에도 같은 책을 읽었다. 이와 같이 6월은 3회 주강을 실시하고, 7월에는 2회(11, 21일)를 실시하면서 하루는 세자를 <涵仁亭>으로 참석하도록 하여 『論語』의 내용 중 ‘遊必有方’의 뜻을 묻기도 하였다.<sup>96)</sup> 8월에도 2일, 11일, 12일 3회를, 9월에도 12회(1, 2, 3, 4, 5, 6, 7, 8, 9, 10, 11, 20일)를 <涵仁亭>에서 『中庸』을 읽었는데 전에 비해 가장 많은 독서 횟수를 보인 달이다. 10월에는 2일, 8일, 20일 3회 독서를 하였으며, 2일까지 <涵仁亭>에서 『中庸』을 읽고, 8일부터 동 장소에서 『大學』을 읽었다.<sup>97)</sup> 11월의 주강은 5회(1, 6, 10, 18, 29일)였다. 동월 1일 영조는 『大學』을 읽으며, “하루아침에 환하게 깨달아 通達하는 경지에 이르면 모든 사물의 바깥과 안쪽, 정밀하고 조잡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게 되고, 내 마음의 온전한 體와 커다란 用이 밝혀지지 아니함이 없게 된다.”라고 하였는데, 나는 몇 차례나 이를 강독하여도 아직도 환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실로 부끄러울 뿐이다.” 하였다.<sup>98)</sup> 영조의 이 말은 『大學』을 여러 번 읽어도 깨달음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6일에는 『大學』을 다시 읽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 講讀하는 『大學』은 바로 임진년(1712, 숙종 38년)에 師傅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공부를 끝내지 못하고 7년 동안 侍湯하다가 신축년(1721, 경종 원년)에 儲君이 되어서 비로소 강독을 끝마치게 되었던 것이다. 지금 장차 孝章懿昭宮에 들어가서 臨御하려 하는데, 養性軒은 바로 옛날에 號를 받은 것이며, 임진년에 이 책을 강하던 곳이다. 일흔 살을 바라보는 나이에 그 책을 다시 읽고,

93) 『朝鮮王朝實錄』 英祖 32年 3月 28日(丙申) 卷87. 冊43. p.617.

94) 『朝鮮王朝實錄』 英祖 34年 6月 15日(己巳) 卷91. 冊43. p.690.

95) 『朝鮮王朝實錄』 英祖 34年 6月 16日(庚午) 卷91. 冊43. p.690.

96) 『朝鮮王朝實錄』 英祖 34年 7月 11日(乙未) 卷92. 冊43. p.693.

97) 『朝鮮王朝實錄』 英祖 34年 10月 8日(辛酉) 卷92. 冊43. p.701.

98) 『朝鮮王朝實錄』 英祖 34年 11月 1日(甲申) 卷92. 冊43. p.702.

또 옛날 그 곳에 가게 되니, 仲由(공자의 제자 子路)가 쌀 짐을 지던 옛날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다. 中甸의 晝講을 오늘로 정하여 진행하도록 하라. 還宮할 때에 孝章廟을 두루 돌아보고, 양성현에 가서 『大學』을 강할 것이다. 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왕년에 강하였던 책을 오늘 이 집에서 다시 강하는구나. 그러나 40여 년 동안에 아무런 實效도 없이 책은 책대로 나는 나대로이니, 내가 실로 이 養性軒에 부끄럽다.”(하략)<sup>99)</sup>

이는 일흔 살이 되어 세자시절에 읽었던 『大學』이 추억으로 떠올라 다시 읽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월 10일엔 <涵仁亭>에서, 18일과 29일에는 <恭默閣>에서 『大學』을 읽었으며, 12월은 휴강하였다. 영조 35년(1759) 1월은 휴강하고, 2월에는 2일, 11일, 21일 3회 독서한바 동월 2일에는 시독관 南綺老 등과 <崇文堂>에서 『中庸』을 읽었다. 장소에 대해서 영조는, “내가 病後에 기운이 매우 피곤하여 孝昭殿에 왕래할 수가 없다. 이 堂은 孝昭殿과 지극히 가까우니 殿中에 交椅를 설치하여 바라보며 의지할 처소를 만들라.” 하였는데,<sup>100)</sup> 11일과 21일 <涵仁亭>에서 독서하였다. 3월은 12일, 19일 2회 독서로 12일에는 <恭默閣>에서, 19일에는 涵仁亭에서 『中庸』을 강독하였다. 4월은 4회(1, 12, 19, 28일)로 1일과 2일은 <涵仁亭>, 19일과 28일은 <明政殿>에서 『中庸』을 읽었다. 5월은 휴강하고 6월에는 3회(5일, 12일, 24일) 실시했는데 5일, 12일은 <崇文堂>에서 『中庸』을, 24일부터 『大學』으로 바꾸어 읽었다. 계속해서 『大學』을 윤6월 3회(1일, 10일, 21일), 7월 3회(1일, 11일, 19일), 8월 19일까지 <熙政堂>에서 읽었다. 다시 독서 자료를 『中庸』으로 바꾸어 부제학 趙明鼎과 함께 9월 3일, 20일 2회, 10월 3회(2일, 13일, 21일), 11월 3회(2일, 11일, 21일), 12월 3회(4일, 11일, 21일)도 모두 <熙政堂>에서 독서하였다. 영조 36년(1760)의 주강은 1월 3회(3일, 9일, 11일)로 3일과 9일은 <熙政堂>에서, 11일엔 <崇文堂>에서 시독관 嚴璘 등과 함께 『中庸』을 읽었으며, 이 날 세손을 주장에 참석하도록 하여 『小學』을 시강하도록 하고 ‘灑掃’란 뜻을 물어보기도 하였다.<sup>101)</sup> 2월은 5일과 9일 2회의 독서를 『大學』으로 하였으며, 5일에는 시독관 嚴璘과 함께 <熙政堂>에서, 9일은 <明政殿>에서 『大學』의 <御製序>를 읽었다.<sup>102)</sup> 3월은 2일과 20일 2회 모두 <熙政堂>에서 특진관 洪啓禧와 함께 『大學』을 읽었으며, 세손도 참여하도록 하여 열심히 학문에 힘쓰도록 하였다. 4월은 1일, 10일, 19일 3회 실시하였다. 1일엔 검토관 金華鎭과 <熙政堂>에서 『大學』의 ‘慎獨’에 관해 토론하였으며, 19일엔 영조는 『大學』을 강독하면서 반성의 자세를 지경연 홍계희에게 얘기한다. 즉,

“驕’의 한 글자는 실로 나라를 망치는 근본인데, 글은 글대로 나는 나대로 여서 아직 공부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겸연쩍다. 아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내가 『大學』을 강론한 횟수가 적지 않은데도 실효는 없다. 이제는 내가 유신으로 하여금 나에게 ‘어떤 일든지 실행할 수 있는지’를 질문을 하게 하여, 내가 실행한 것이 있으면 ‘이미 실행하였다.’고 답하고, 만일 실행하지 못하였으면 ‘아직 실행하지 못하였다.’고 답할 것이다. 무엇하러 꼭 구절 구절이 강론할 필요가 있겠는가?”<sup>103)</sup>

99) 『朝鮮王朝實錄』 英祖 34年 11月 6日(己丑) 卷92. 冊43. p.703.

100) 『朝鮮王朝實錄』 英祖 35年 2月 2日(癸丑) 卷93. 冊44. p.2.

101) 『朝鮮王朝實錄』 英祖 36年 1月 3日(己酉) 卷95. 冊44. p.28.

102) 『朝鮮王朝實錄』 英祖 36年 2月 9日(甲申) 卷95. 冊44. p.30.

이 글을 보면 아무리 독서를 해도 실효성이 없음을 닦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구절 구절 모두 읽을 필요 없이 실효성이 있는 곳만 가려서 읽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5월에는 3회(11, 12, 13일)로, 11일엔 <熙政堂>에서 『大學』을 읽은 다음 『中庸』의 <御製中庸序文>을 12일 까지 읽었으며, 13일에도 『中庸』으로 독서하였다.<sup>104)</sup> 6월도 3회(3일, 9일, 16일)의 독서를 실시하였다. 3일에는 사직단에서 비를 빌고 돌아오는 길에 <彰義宮>에 들러서 『中庸』을 읽었으며, ‘精白一心視國如家’ 여덟 자를 써서 비변사에 걸어두라고 하였다.<sup>105)</sup> 9일과 16일에는 <熙政堂>에서 우의정 閔百祥, 시독관 徐命天 등과 독서하였다. 7월은 2일, 9일, 11일 3회로 2일에도 <熙政堂>에서, 9일엔 <興政堂>에서 『中庸』을 읽었으며, 8월은 2회(4일, 9일), 9월 3회(2일, 7일, 10일)를 <景賢堂>으로 장소를 이동하여 독서하였다. 9월 7일까지는 『中庸』으로 독서하고, 10일에는 『大學』을 읽었다.<sup>106)</sup> 10월에는 3회(4일, 9일, 16일)와 11월 3회(1일, 8일, 12일)도 <景賢堂>에서 시독관(교리) 沈履之와 『大學』을 함께 읽었다. 11월 12일에는 『大學』을 읽은 다음 부제학 趙明鼎이 『中庸』의 <御製序文>을 읽고, “삼가 서문의 大意를 보니, 聖學의 造詣가 이미 지극한 경지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하여 영조를 칭찬하기도 하였다.<sup>107)</sup> 12월은 3회(2, 7, 10일)부터 다시 『中庸』으로 바꾸어 우의정 閔百祥, 부제학 徐命膺, 시독관 沈履之 등과 함께 <景賢堂>에서 독서하였다. 이상으로 영조 36년 한 해의 독서 횟수는 33회로 나타났다. 영조 37년(1761) 1월은 5일과 10일 2회, 2월은 5일과 10일 2회, 3월 휴강, 4월은 16일, 19일, 20일 3회, 5월에는 2일과 6일 2회도 <景賢堂>에서 『中庸』을 읽었으며, 5월 11일과 6월 9일, 13일 다시 『大學』으로 바꾸어 읽었다. 7월의 주장에도 6회(18, 21, 23, 24, 25, 26일) 모두 <景賢堂>에서 『大學』을 읽었으며, 특히 23일에는 21일 불참한 경연관들을 모두 파직하도록 하였다.<sup>108)</sup> 8월은 휴강하고, 9월에는 1일, 8일, 16일 3회 실시한바 1일, 8일에는 시독관 嚴璘, 지사 徐志修, 金尙喆 등과 『中庸』을 읽으며 ‘中’자에 대해 설명하였다.<sup>109)</sup> 16일에는 세손을 참석시켜 『中庸』을 읽은 다음 ‘常’자의 의미와 ‘教’의 의의, 『小學』의 <立教篇>이 기재된 이유 등을 문답하였다.<sup>110)</sup> 10월은 5일과 17일 2회를 <景賢堂>에서 『中庸』을 읽었는데, 5일 주장에서 영조는 李養源에게 글의 의미에 대한 토론을 부탁하였으나 李養源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사양하였다. 이에 영조는 “내가 오래도록 『中庸』과 『大學』을 읽었으나 글은 글대로 나는 나대로 이니, 어찌하여야 할꼬?” 하면서 한탄하자 李養源이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병통인 줄로 아신다면 이와 같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약입니다.”라고 애매한 답변을 하였다.<sup>111)</sup> 이러 한 상황을 보면 영조 자신은 사실

103) 『朝鮮王朝實錄』 英祖 36年 4月 19日(癸巳) 卷95. 冊44. p.34.  
 104) 『朝鮮王朝實錄』 英祖 36年 5月 13日(丙辰) 卷95. 冊44. p.36.  
 105) 『朝鮮王朝實錄』 英祖 36年 6月 3日(乙亥) 卷95. 冊44. p.38.  
 106) 『朝鮮王朝實錄』 英祖 36年 9月 10日(辛亥) 卷96. 冊44. p.45.  
 107) 『朝鮮王朝實錄』 英祖 36年 11月 12日(壬子) 卷96. 冊44. p.51.  
 108) 『朝鮮王朝實錄』 英祖 37年 7月 21日(丁巳) 卷98. 冊44. p.73.  
 109) 『朝鮮王朝實錄』 英祖 37年 9月 8日(癸卯) 卷98. 冊44. p.78.  
 110) 『朝鮮王朝實錄』 英祖 37年 9月 16日(辛亥) 卷98. 冊44. p.79.  
 111) 『朝鮮王朝實錄』 英祖 37年 10月 5日(庚午) 卷98. 冊44. p.81.

독서를 좋아해서 책을 가까이 하고는 있으나 국사의 고민과 잡념이 많아 책과 따로 놀았던 것으로 보인다. 11월도 3회(2일, 8일, 11일)의 독서를 했는데 2일에는 시독관 李仁培와 『中庸』의 내용 중 ‘忠과 恕’에 관해 토론하였으며, 8일에는 李在協과 함께하였다. 12월에도 1일, 10일, 23일 3회를 <景賢堂>에서 洪櫨 등과 『中庸』을 읽었다.

영조 38년(1762) 1월은 3회(2, 8, 18일), 2월 3회(1, 11, 23일)를 <景賢堂>에서 시독관 金相翊과 함께 『中庸』을 읽었으며, 3월도 3회(1, 11, 16일) 실시하면서 1일과 11일에는 <景賢堂>에서 『中庸』을 읽다가 다시 16일부터는 『大學』을 읽었다.<sup>112)</sup> 4월은 1일 1회만 독서하고 휴강하였다. 4월 21일 당시 영조는 시골의 인재를 구하도록 하면서 문신들에게 다음과 같이 한 말이 있다.

“지금 바야흐로 스스로 힘써야 할 것은 학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으며, 나라일이 위태로우니 또한 어찌 그냥 보 고만 있겠는가? 『中庸』과 『大學』을 번갈아 읽고 있으나 책은 책대로 이고 나는 나대로 여서 한 달에 몇 번 대하는 것도 부서 기회(簿書期會; 자질구레한 사무)에 불과하니, 자강하는 데에 무슨 도움이 되겠으며, 나라일에도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마음이 스스로 부끄러워 거의 먹기를 잊을 정도이다. 그 이유를 따져보니, 허물이 나 한 사람에게 있다.”<sup>113)</sup>

영조는 당시 문신들은 기강이 헤이해지고 탐관오리는 늘어나 백성을 약탈한 일이 자주 일어나 나라꼴이 말이 아니었으며, 또한 세자문제로 더욱 괴로워 책을 읽어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書自書 我自我’란 말을 작년 10월에도 한 적이 있다. 영조는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청렴한 인재를 시골에 은둔하고 있는 문신들 중에서 찾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5월은 2일과 7일 2회를 <景賢堂>에서 『大學』을 읽고, 윤5월 1일과 20일은 다시 『中庸』으로 교체하였다. 윤5월은 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달이다.<sup>114)</sup> 그 여파로 6월은 휴강하고, 7월은 10회(7, 15, 16, 21, 22, 24, 25, 26, 27, 30일), 8월은 4회(2, 3, 7, 27일)를 『中庸』으로 독서하였으며, 27일엔 세손에게 ‘彼以其爵 我以吾義(너는 작위로, 나는 내 뜻으로)’의 뜻을 질문했는데, 세손의 답은 “仁義가 내게 있지 다른 곳에 있지 않다는 말이므로 내 뜻이라 한 것입니다.”라고 답하자, 영조는 기뻐하며, ‘朝鮮은 이제 잘 될 희망이 있다.’ 한 뒤에 尊經閣을 수리하여 학문하는 장소로 사용하도록 하였다.<sup>115)</sup> 이는 영조가 세자를 죽게 한 뒤 세손에게 기대를 걸었음을 알 수 있다. 9월에도 12회(5, 6, 11, 14, 15, 16, 18, 19, 20, 26, 28, 30일)를 주장한바 11일에는 세손을 위해 『孟子』를 강독한 다음 『中庸』을 읽었다.<sup>116)</sup> 『中庸』은 동 26일까지 읽고, 28일부터 『大學』을 읽었다. 장소 역시 <景賢堂>이었으며, 10월에도 9회(2, 3, 9, 11, 12, 15, 18, 19, 21일), 11월은 3회(8일, 13일, 19일) 모두 『大學』을 읽었으며, 경연관은 洪鳳漢, 韓必壽, 李明煥, 徐有元, 趙重晦, 金陽澤, 姜必履, 嚴璘 등이었다. 12월 29일 다시 『中庸』을

112) 『朝鮮王朝實錄』英祖 38年 3月 16日(己酉) 卷99. 冊44. p.94.

113) 『朝鮮王朝實錄』英祖 38年 4月 21日(甲申) 卷99. 冊44. p.96.

114) 『朝鮮王朝實錄』英祖 38年 윤5月 13日(乙亥) 卷99. 冊44. p.101.

115) 『朝鮮王朝實錄』英祖 38年 8月 27日(丁巳) 卷100. 冊44. p.113.

116) 『朝鮮王朝實錄』英祖 38年 9月 11日(庚午) 卷100. 冊44. p.114.

읽었다.<sup>117)</sup> 이상 영조 38년(1762)의 독서 횟수는 55회로 재위 동안 가장 많은 독서를 한 것이다. 자신의 하나 밖에 없는 자식을 죽인 것은 엄청난 충격인데도 『中庸』과 『大學』을 번갈아가며 읽고, 세손을 주장에 참여시켜 학문의 발전을 모색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영조 39년(1763)의 주장은 1월에 10회(7, 9, 10, 14, 16, 22, 23, 24, 26, 27일), 2월은 8회(3, 5, 11, 18, 22, 26, 27, 29일)로 2월 27일 까지 『中庸』을 읽고, 2월 29일부터 『論語』를 읽기 시작하였다.<sup>118)</sup> 3월은 5회(3, 14, 15, 20, 22일)를 독서하였으며, 3일에는 경연관 宋明欽과 ‘仁’을 주제로 토론하였다.<sup>119)</sup> 4월은 13회(5, 10, 12, 13, 16, 17, 20, 21, 22, 23, 24, 27, 28일)로 가장 많은 독서 횟수를 보였다. 5월에도 11회(6, 12, 14, 16, 17, 18, 22, 24, 27, 28, 29일)를 독서하였는데, 29일 실시한 『論語』에서 子貢이 孔子에게 ‘仁’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토론하였다.<sup>120)</sup> 6월은 9회(1, 2, 4, 9, 12, 18, 21, 23, 25일)를 독서한바 동월 9일에는 『論語』를 읽은 다음 이어서 『大學』을 읽고, 참석한 세자에게는 『孟子』 <尊賢章>을 읽도록 한 뒤 문답하였다.<sup>121)</sup> 7월에는 10회(1, 6, 7, 12, 17, 19, 21, 22, 24, 25일)로 동경연 徐志修, 黃仁檢 등과 함께하였으며, 7월 17일에 『大學』을 완독하고 다시 『中庸』을 읽기 시작하였다.<sup>122)</sup> 8월은 4회(2, 7, 9, 10일) 주장을 실시하였으며, 9월은 9회(3, 10, 11, 19, 20, 21, 22, 26, 27일)로 11일엔 『中庸』 <九經章>을 읽고 문신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하였다.<sup>123)</sup> 22에는 『中庸』을 마치고 『孟子』를 읽었다. 이날 영조는 세자와 다음과 같이 문답을 나누었다.

“癸未年 9월 22일 시강했는데 어린 세손이 시좌하였다(癸未九月二十二日始講沖子侍坐)’는 열 네 글자를 冊面에 손수 쓰고 나서 王世孫을 돌아보면서 이르기를, 내가 嗣服 한 처음에 이 책을 강하였는데, 내가 또 初度(탄신일)의 달에 이 책을 侍講하였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강독하게 된 것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내가 너와 問難하려 하는데 되겠는가? 仁은 무슨 물건이고, 義는 무슨 물건인가?

세손: 惻隱이 仁이고 羞惡가 義입니다.

영조: 이 利자가 元亨利貞의 利자와 뜻이 같은가, 다른가?

세손: 元亨利貞은 하늘의 네 계절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의 利자는 곧 利慾의 利자입니다. 글자는 같지만 뜻은 다릅니다. 하여 영조는 세손에게 잘한다고 칭찬하였다.”<sup>124)</sup>

이는 영조가 재위 39년(계미년, 1763) 9월 22일 세손을 불러들여 문답한 뒤 칭찬하는 장면이다. 계속해서 10월은 4회(6, 8, 9, 15일), 11월은 8회(6, 8, 11, 12, 17, 20, 23, 25일), 12월은 11일과 14일 2회를 주장에서 『孟子』를 읽었다. 영조 40년(1764) 1월에는 10회(4, 9, 10, 16, 17, 18, 22,

117) 『朝鮮王朝實錄』 英祖 38年 12月 29日(丁巳) 卷100. 冊44. p.120.

118) 『朝鮮王朝實錄』 英祖 39年 2月 29日(丁巳) 卷101. 冊44. p.128.

119) 『朝鮮王朝實錄』 英祖 39年 3月 3日(庚申) 卷101. 冊44. p.128.

120) 『朝鮮王朝實錄』 英祖 39年 5月 29日(乙酉) 卷101. 冊44. p.136.

121) 『朝鮮王朝實錄』 英祖 39年 6月 9日(乙未) 卷102. 冊44. p.138.

122) 『朝鮮王朝實錄』 英祖 39年 7月 17日(壬申) 卷102. 冊44. p.141.

123) 『朝鮮王朝實錄』 英祖 39年 9月 11日(乙丑) 卷102. 冊44. p.145.

124) 『朝鮮王朝實錄』 英祖 39年 9月 22日(丙子) 卷102. 冊44. p.146.

24, 26, 27일)의 주장을 실시하였는데. 4일과 9일에는 『孟子』를, 10일에는 대사성 趙明鼎에게 성균관 학생들을 인솔하여 오도록 하여 『周易』의卦 하나씩을 강독하고 토론하도록 한 뒤 종이와 붓을 하사하였다.<sup>125)</sup> 17일엔 『孟子』를 읽고 주장에 참석한 세손에게는 『中庸』 15장을 읽도록 하고 ‘형제, 저자가 화목하지 못한 것은 누구의 짓인지’에 대해 문답하였다.<sup>126)</sup> 2월에는 4회(4, 13, 18, 27일)로 13일엔 <資政殿>에서 영의정 洪鳳漢, 집의 任希教, 장령 韓必壽 등과 함께 주장을 하였다. 3월은 9회(3, 4, 6, 10, 11, 16, 21, 22, 28일)로 10일엔 『孟子』 <滕文公章句>의 ‘然友反命章’까지 읽고 본인의 소회를 얘기하였다.<sup>127)</sup> 4월은 8회(4, 17, 18, 20, 23, 24, 25, 29일)로 주로 <資政殿>에서 주장하였으며, 5월에는 14회(1, 2, 5, 6, 7, 11, 12, 13, 14, 15, 16, 21, 22, 27일)의 주장에서 독서를 하였다. 영조가 역대 가장 많이 독서한 달이다. 장소도 <資政殿>에서 <景賢堂>으로 바꾸었다. 6월은 8회(4, 10, 13, 17, 18, 21, 22, 23일)로 21일에는 동몽교관에게 어린이들을 함께 들어오도록 하여 『小學』을 읽도록 하고 상으로 종이와 붓을 하사하였다.<sup>128)</sup> 7월은 11회(2, 3, 4, 11, 14, 17, 18, 21, 22, 23, 24일)의 독서했는데, 2일은 『孟子』를 읽으며 <熊魚章>에 이르러 시독관 朴盛源, 검토회 金魯鎮과 토론하였다.<sup>129)</sup> 3일에는 가뭄으로 인한 기우제에 쓸 향을 맞이하면서 <月臺>에서 주장을 하였으며, 14일에는 <景賢堂>에서 주장하였다. 8월은 7회(1, 2, 7, 8, 16, 17, 29일), 9월은 9회(1, 4, 5, 10, 15, 16, 17, 19, 21일)를 실시한바, 1일에 <宣政殿>에서 독서하였으며, 16일에는 『詩經』의 서문을 짓고 독서하였다. 일전에도 『中庸』의 서문을 지었으며, 갑인년(영조 10, 1734)에 『詩經』을 읽고, 또 다시 지금 甲年에 『詩經』을 읽고 있으므로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문을 지었다는 것이다.<sup>130)</sup> 10월은 11회(7, 8, 9, 10, 11, 13, 14, 15, 19, 22, 29일)를 독서하였다. 7일 주장에서는 동지경연 金尙喆이 영조의 성격이 날카롭다는 것과 이명환을 보첩에서 삭제시킨 일, 통행금지를 새벽까지 실시하므로 나무장사나 채소장사가 소요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말하였다.<sup>131)</sup> 9일에는 주장에서 전 설서 尹正烈에게 『書傳』 <洪水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의를 물었다.

“古人이 홍수와 맹수로 당파의 습관을 비하했는데, 지금도 당파가 있는가? 하고 묻자, 尹正烈이 감히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고 어물거리며 漢·唐의 고사만 인용하여 대답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말하기를, ‘사실대로 임금에게 고하는 자가 아니다.’ 하고, 매우 책망하면서 그를 翰圈과 앞서 설서에 임명된 것을 취소하라고 명하였다.”<sup>132)</sup>

책을 읽으며 문신의 실력과 태도를 평가하여 상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10월 14일에는

125) 『朝鮮王朝實錄』 英祖 40年 1月 10日(壬戌) 卷103. 冊44. p.156.

126) 『朝鮮王朝實錄』 英祖 40年 1月 17日(己巳) 卷103. 冊44. p.156.

127) 『朝鮮王朝實錄』 英祖 40年 3月 10日(辛酉) 卷103. 冊44. p.161.

128) 『朝鮮王朝實錄』 英祖 40年 6月 22日(壬寅) 卷103. 冊44. p.170.

129) 『朝鮮王朝實錄』 英祖 40年 7月 2日(壬子) 卷104. 冊44. p.171.

130) 『朝鮮王朝實錄』 英祖 40年 9月 16日(乙丑) 卷104. 冊44. p.179.

131) 『朝鮮王朝實錄』 英祖 40年 10月 7日(乙酉) 卷104. 冊44. p.181.

132) 『朝鮮王朝實錄』 英祖 40年 10月 9日(丁亥) 卷104. 冊44. p.181.

<熙政堂>에서 주장하였으며, 15일에는 주장에서 혼인할 때 신랑이 신부를 직접 맞이해 오는 것은 큰 윤리인데 요즘 사대부 집에서는 복잡해서 그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으니 간략하게라도 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하라 했다.<sup>133)</sup> 29일에는 『詩經』 <唐風>의 <采芣苢章>을 시독관 具庠과 함께 읽으며, 신하들이 참조하는 말을 의식하지 않도록 권유하였다.<sup>134)</sup> 11월은 8회(2, 8, 9, 11, 12, 19, 21, 22일), 12월은 4회(11, 13, 16, 29일)의 독서를 하면서 童蒙敎官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게 하여 배운 글을 외우게 한 후 종이와 붓을 하사하였다.<sup>135)</sup> 영조 41년(1765)의 주장은 1월 12회(2, 6, 7, 10, 11, 13, 18, 20, 21, 22, 25, 27일)로 계속해서 『詩經』을 읽었으며, 2일 주장에서 영의정 洪鳳漢은 현수 잔치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영조는 풍년이 들어도 어렵거늘 지금은 흉년이라 더욱 어려우며, 이런 일을 손자에게 보여줄 수 없다 하여 거절하였다. 6일에는 『詩經』 <小雅>의 ‘雨無正章’을 강독하고,<sup>136)</sup> 10일 주장에서는 세손을 참여시켜 『書經』 <武成篇>을 읽은 다음 세손에게 ‘어떻게 하면 堯舜처럼 팔짱을 끼고 앉아서도 다스릴 수가 있을까?’라고 질문하면서 문답이 시작되었으며, 11일에는 『詩經』 <小雅>의 楚茨와 信南山章을 읽고 玉堂官에게 명하여 이 兩章을 扁額에 써서 태묘의 齋室과 社壇에 걸도록 하였다.<sup>137)</sup> 2월은 7회(2, 4, 8, 21, 22, 26, 28일)로 21일부터는 <隆武堂>에서 『心經』을 읽기 시작하였으며,<sup>138)</sup> 26일에는 <興政堂>에서 독서하였다. 윤2월은 10회(3, 4, 5, 13, 20, 21, 23, 27, 28, 30일)의 주장을 열어 5일부터 『書經』을 읽었으며, 13일에는 영조는 <景賢堂>의 주장에 세손을 참여시켜 <微子之命>을 강하게 하고, “할아버지와 손자가 『書經』을 같이 읽는 것도 역시 드문 일이다.” 하고, 문장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기를, “蕃王室의 ‘蕃’ 자는 무슨 뜻이냐?” 등으로 문답을 하였다.<sup>139)</sup> 23일에는 『書經』 <商書>의 ‘湯誓’ 내용 중 ‘舍我穡事(우리에게 농사를 버리게 한다)’章을 강독하였다.<sup>140)</sup> 3월엔 6회(5, 13, 15, 18, 21, 22일)로 계속해서 『書經』을 읽었으며, 18일에는 <洛誥>를 읽으며, 특진관 洪麟漢과 토의하면서 태조가 漢陽으로 환도한 해임을 기억하도록 하고, 22일에는 <無逸篇>을 읽은 뒤 시강관 徐命善, 지경연사 韓翼謨 등과 토론하였다.<sup>141)</sup> 4월은 10회(4, 5, 11, 12, 19, 22, 24, 25, 26, 29일)의 주장을 열어 24일부터 『近思錄』을 읽은 후 童蒙敎官에게 어린이를 부르게 하여 ‘古風詩’를 시험하고 紙筆을 시상하였으며, 26일에 다시 『書經』 <無逸篇>을 읽었다.<sup>142)</sup> 5월은 9회(2, 11, 15, 17, 22, 26, 28, 29, 30일)의 주장을 실시하였으며, 2일에는 <資政殿>에서 독서하고, 26일에는 주장에 衛士를 불러서 兵書를 읽고 陣圖를 배풀게

133) 『朝鮮王朝實錄』 英祖 40年 10月 15日(癸巳) 卷104. 冊44. p.183.

134) 『朝鮮王朝實錄』 英祖 40年 10月 29日(丁未) 卷104. 冊44. p.185.

135) 『朝鮮王朝實錄』 英祖 40年 12月 16日(癸巳) 卷104. 冊44. p.188.

136) 『朝鮮王朝實錄』 英祖 41年 1月 2日(戊申) 卷105. 冊44. p.189.

137) 『朝鮮王朝實錄』 英祖 41年 1月 10日(丙辰) 卷105. 冊44. p.190.

138) 『朝鮮王朝實錄』 英祖 41年 2月 21日(丁酉) 卷105. 冊44. p.192.

139) 『朝鮮王朝實錄』 英祖 41年 윤2月 5日(庚戌) 卷105. 冊44. p.193.

140) 『朝鮮王朝實錄』 英祖 41年 윤2月 23日(戊辰) 卷105. 冊44. p.194.

141) 『朝鮮王朝實錄』 英祖 41年 3月 18日(癸巳) 卷105. 冊44. p.195.

142) 『朝鮮王朝實錄』 英祖 41年 4月 24日(己巳) 卷105. 冊44. p.198.

한 뒤 차등 있게 弓矢를 하사하였다.<sup>143)</sup> 6월의 주장은 10회(2, 3, 4, 10, 13, 15, 17, 19, 20, 25일)로 19일에는 <興政堂>에서 독서하였으며, 20일에는 새로 임명한 경연관(玉堂) 閔弘烈, 李性遂가 명령에 불복중한다 하여 江華의 濟物浦와 德津 兩鎭의 萬戶로 黜補시켰다.<sup>144)</sup> 7월은 6회(1, 3, 12, 14, 21, 29일) 실시하였는데 3일 주장에서 『近思錄』 <西銘章>을 읽으며, ‘백성은 나의 동포이니 그 무리들과 나는 함께 한다’는 문장에서, 영조는 “나는 못 신하들에 대해서도 구별하여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나,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자는 더욱 불쌍하니, 선전관을 나누어 보내어 鐘街에 떠돌아다니며 구걸하는 무리들을 가서 살피고 그 居住地를 몰아서 고향에 돌아가고자 하는 자는 宣惠廳으로 하여금 양식을 주어 보내도록 하라.”<sup>145)</sup> 하였다. 이는 영조가 책의 내용을 보고 불쌍한 백성을 생각한 것이다. 곧 독서를 통해 깨닫게 되고 깨달음을 통해 실천으로 옮기는 여유를 보인 것이다. 8월은 6회(2, 7, 11, 27, 28, 30일), 9월은 7회(5, 12, 14, 20, 24, 26, 28일)로 5일 시독관 李晉圭 등과 함께하였으며, 10월은 8회(1, 2, 5, 10, 12, 14, 17, 18일)의 주장도 <興政堂>에서 하였다. 11월은 6회(2, 7, 11, 12, 18, 26일)로 2일 주장에서 『近思錄』을 읽으면서 책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즉, “이 책의 구두점은 바로 先正 宋時烈이 정한 것이라 하는데, 그러한가?” 하니, 동경연 元仁孫이 말하기를, “李世澤의 말에 의하면 文純公 李滉이 정한 것이라 하는데, 지금까지 傳來하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sup>146)</sup> 하였다. 12일엔 왕세손을 참석시켜 『詩傳』의 <竹竿> 4장을 외게 하고 문답을 하였으며, 또한 세손에게 “네가 독서하는 때를 당하여 闈人들이 너에게 책읽기를 멈추도록 권한다면, 이는 군자의 할 것인가 소인이 할 것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소인에 가깝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네 나이 한 달만 지나면 志學(15세)의 나이가 되니, 가히 힘쓰지 않겠는가? 오늘 冑筵(書筵)의 신하는 이로써 경계를 삼고, 너도 또한 지켜서 잃지 않는다면 이는 宗社의 福인 것이다.”<sup>147)</sup> 이 내용은 세손에게 독서를 권장하여 국가의 안녕과 종묘사직을 위해 국정운영을 넘기려는 생각이 보인다. 영조 42년(1766) 1월부터 4월까지 휴강하고, 5월은 8일 하루 王世孫이 侍坐하고 영사 洪鳳漢, 지사 南泰齊, 특진관 金善行, 참찬관 趙明鼎, 金華鎭, 시강관 金龜柱, 기사관 崔光壁, 편수관 金載玉, 기사관 車鳳轅 등이 입시하여 『小學』을 읽고 다음과 같은 문답을 하였다.

“영조가 먼저 ‘元亨利貞’에서 ‘惟聖之謨’까지 강독하고 물었다. 무릇 몇 大文人가? 하니, 홍봉한이 말하기를, 열 대문입니다. 하매, 영사 이하에게 각각 한 대문씩 돌려가면서 읽으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사(南泰齊)는 옛 玉堂인데, 음성도 높았다. 하면서 옥당 上下番에게 한 대문을 더 읽으라고 명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아까 내가 강독한 것이 조금 잘못되었으니, 마땅히 다시 강독하겠다. 하고, 곧 全篇을 외우고 말하기를, 이제야 小學童子의 일을 닦았다.(중략)하고 나는 13세부터 이 책을 강독하여 지금 73세에 이르렀으나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다.”고 하였다.<sup>148)</sup>

143) 『朝鮮王朝實錄』 英祖 41年 5月 26日(庚子) 卷105. 冊44. p.200.

144) 『朝鮮王朝實錄』 英祖 41年 6月 20日(甲子) 卷105. 冊44. p.201.

145) 『朝鮮王朝實錄』 英祖 41年 7月 3日(丙子) 卷106. 冊44. p.202.

146) 『朝鮮王朝實錄』 英祖 41年 11月 2日(癸酉) 卷106. 冊44. p.210.

147) 『朝鮮王朝實錄』 英祖 41年 11月 12日(癸未) 卷106. 冊44. p.210.

영조는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小學』을 읽어왔으나 위의 글처럼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 이후에도 여전히 『小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독서하였다. 6월부터 9월 19일까지 휴강하고 9월 20일에 다시 『小學』 <射御章>을 강독하였다. 강독 후 영조는 80을 바라보는 금년에 몇 달을 오래 폐하였다가 이제 주장을 여니, 이것도 뜻밖이다. 하니, 지사 黃景源은, ‘사람을 가르치는 도리가 마땅히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미 胎敎를 말하였고, 또 ‘赤子の 마음을 잃지 말라.’고 하였으니, 이 책은 가장 體認할 곳입니다.’ 하였다. 영조는, ‘금년은 바로 내가 13세에 스승에게 나아간 해이다.’ 하고, 御筆로 四字二句를 써서 내려, 여러 신하에게 和答해 올리라고 명하고 인하여 饌을 내려 주었다.<sup>149)</sup> 10월 2일은 『小學』 <明倫篇>을 강독하였다. 영조는 “13세 때 『小學』을 강하였는데 지금 73세에 이 글을 다시 강하니, 또한 이상하다.”<sup>150)</sup> 한 것을 보면, 이는 영조가 지난 5월에 한 말이다. 10월에 다시 여기에 또 기록한 것은 『小學』을 보니 옛 느낌이 자꾸 떠오르는 느낌이 든다고 봐진다. 영조 42년(1766)에는 『小學』만 3회 정도 읽었으니 거의 독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조 43년(1767) 1월 휴강하고, 2월 22일에 <彰義宮>의 養性軒에서 『小學』을 읽으며, “내가 19세 때 『大學』을 이 양성헌에서 강독하였는데, 이제 또 이곳에 와서 거듭 『小學』을 읽을 줄은 실로 뜻밖이다.”<sup>151)</sup> 하는 걸 보면 자꾸 옛일이 떠오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는 영조가 나이가 들어 모든 것이 추억으로 변한 듯하다. 읽어도 실효성을 얻은 것이다. 4월 12일 주장에서 시독관과의 대화에서도 잘 나타난다. 당시 영조는 『小學』 篇題를 읽다가 ‘佐長者視具章’에 이르자, 시독관 鄭昌順이 ‘이 한 편은 참으로 孝悌의 근본이니, 實德에 더욱 힘쓰는 것이 좋습니다.’ 하니까 영조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에 이르기까지 이 책의 뜻을 대략은 알고 있었다. 지금은 나이가 이미 80세를 바라보게 되었으니, 비록 이 책을 강하더라도 어찌 실효를 바라겠는가?’<sup>152)</sup> 한 데서 알 수 있다. 5월 25일에는 『小學』을 읽고, 세손에게 『詩傳』 節南山章과 正月章을 강독하도록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문답하였다.<sup>153)</sup> 6월과 7월은 휴강하고 8월 5일에 『小學』을 강독하는데, 영조는 序文을, 시강관 尹永烈은 御製序文을, 검토관 金尙集은 小識를 읽었다. 이 날 승지가 특진관이 다른 일을 핑계대고 경연에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하자 李得宗, 趙榮進에게는 서용하지 말라 하고, 具善行은 의금부에 보내 추고하라고 하였다. 이는 경연관들이 기강이 너무 해이됐음을 알 수 있다.<sup>154)</sup>

이상으로 영조 43년(1767)에는 『小學』만 4회 읽고 1년을 보냈다. 그 원인을 보면, 다음 글에 잘 나타난다. 영조는 동년 10월 2일 승지에게 정해년(1706, 숙종 33)의 일기를 가져와 읽어보라고 하였다. 그 것을 듣고 영조가 말한 내용은,

148) 『朝鮮王朝實錄』 英祖 42年 5月 8日(丙子) 卷107. 冊44. p.220.

149) 『朝鮮王朝實錄』 英祖 42年 9月 20日(丁亥) 卷107. 冊44. p.231.

150) 『朝鮮王朝實錄』 英祖 42年 10月 2日(戊戌) 卷107. 冊44. p.231.

151) 『朝鮮王朝實錄』 英祖 43年 2月 22日(丙辰) 卷108. 冊44. p.240.

152) 『朝鮮王朝實錄』 英祖 43年 4月 12日(乙巳) 卷108. 冊44. p.248.

153) 『朝鮮王朝實錄』 英祖 43年 5月 25日(戊子) 卷108. 冊44. p.253.

154) 『朝鮮王朝實錄』 英祖 43年 8月 5日(丙寅) 卷109. 冊44. p.262.

“올해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으니, 이 마음이 배나 더 쓸쓸하다. 오늘 예전의 이달 오늘치 일기를 다시 보니, 三冬에도 講筵을 자주 열었고, 심지어는 하루 안에 晝講과 夕講을 행하였으며, 기축년(1709, 숙종 35)에도 강연을 폐지하지 않았다. 아! 그해 겨울에 몸이 편치 않았다가 그 다음 해에 건강이 회복되었는데, 그때의 일이 마치 어제와 같다. 지난번 御製 가운데 ‘대궐에서 술자리를 베풀고 초여름에 잔치를 열었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한 것이다. 이 뒤로도 강연을 더욱 부지런히 열었으니, 참으로 성대한 일이었다. 아! 불초한 사람이 비록 올해를 맞이하였으나 자리에 누워서 나날을 보내고 있으니, 어찌 감히 옛날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글자를 분별할 수 없으므로, 억지로라도 강연을 열고 싶지만 지금은 도리가 없다. 멀리 서쪽 교외를 바라보니, 이 마음이 곱절이나 쓸쓸하다. 그 지위에 있으면서 그 예를 행하기를 이제 어찌 바랄 수 있겠는가? 이것을 훑어보고서도 그냥 누워서 나날을 보내고 있으니, 어찌 효도라고 하겠는가?”<sup>155)</sup>

이와 같이 당시 영조의 나이가 74세였다. 노병으로 인하여 자리에 누워서 옛날 좋았던 시절만 떠올리며 지내왔으므로 독서할 여건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영조 44년(1768)의 주강은 거의 하지 못했다. 지난 8월 5일 하루 독서하고 5개월 만에 다시 책 앞으로 왔다. 44년 1월 21일 三經과 四書의 첫 大文 및 『小學』의 篇題와 董生行(韓愈의 小學 善行篇)을 읽고, 유신들은 『詩經』의 <蓼莪>와 <杖杜> 등을 강독하였다.<sup>156)</sup> 5개월 후인 6월 10일 주강을 열어 <崇政殿>의 <月臺>에서 『小學』 題辭를 강독하였다. 결국 영조 44년에는 『小學』 책으로 2회 독서한 것이다. 영조 45년(1769)에는 지난 해 6월 이후 계속해서 영조 45년 1월까지 휴강하였다. 겨우 2월은 27일 1회만 시강관 金載順과 『小學』을 읽고 다시 4월까지 휴강하였다. 5월 12일에도 경연관들에게 輪講하도록 하고 9월까지 다시 쉬었다. 10월은 9회(9, 12, 18, 19, 23, 24, 26, 28, 30일)의 독서로 갑자기 많은 독서 횟수를 보였다. 이것도 약방의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독서한 결과이다. 장소는 <崇政殿> <資政殿> <內殿> 등이며, 책은 『小學』이었다. 11월은 5회(2, 21, 25, 26, 28일)로 2일 <資政殿>에서 『孟子』와 『論語』 몇 장을 강독하고 마쳤다.<sup>157)</sup> 25일에는 <崇政殿>의 동쪽 月臺에서 하였으며, 여전히 약방의 진료를 받으면서 독서하였다. 12월도 5회(1, 7, 23, 26, 29일) 독서하고 한 해를 마쳤다. 영조 46년(1770)의 주강은 1월 10회(2, 7, 13, 14, 15, 17, 20, 22, 25, 26일)로 2일 <崇政殿>에서 시강관 徐浩修와 강독하였으며, 7일에는 강독을 마치고 읽었던 책을 유신에게 전하라 하였다. 즉, 中官을 불러 책을 주며, “이 책을 儒臣에게 전하라. 晩年の 法講을 귀신이 방해하는 것 같으니, 앞으로는 결코 다시 강하지 않겠다.”<sup>158)</sup> 그러나 13일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다. 14일에는 『小學』을 읽고 민간에게 『小學』과 訓民歌를 익히도록 하였다. 26일에는 주강에서 승지 趙勳이 술을 마시고 참여하였다. 영조가 알아차리고 ‘강독하는 막중한 자리에 참찬관계서 술 냄새가 나니 서용치 않는 규율을 시행하라.’ 할 정도로 기강이 해이된 것이다. 2월도 10회(3, 5, 9, 12, 16, 19, 22, 23, 28, 29일), 3월에는 9회(1, 4, 6, 16, 18, 23, 27, 28, 29일) 독서하였다. 3월 1일에는 조강·주강·석강을 모두 실시하였으며, 4일에는

155) 『朝鮮王朝實錄』 英祖 43年 10月 2日(壬戌) 卷109. 冊44. p.265.

156) 『朝鮮王朝實錄』 英祖 44年 1月 21日(庚戌) 卷110. 冊44. p.274.

157) 『朝鮮王朝實錄』 英祖 45年 11月 2日(庚辰) 卷113. 冊44. p.336.

158) 『朝鮮王朝實錄』 英祖 46年 1月 7日(乙酉) 卷114. 冊44. p.344.

『小學』 <立教篇>을 교리 金魯淳과 읽고, <子夏章>을 <立教篇> 끝에 붙임은 무슨 뜻인지 물었다. 金魯淳은 編次를 정할 때 자연 그렇게 되었다고 하였다. 여기까지만 답변했으면 좋았을 텐데 뒷말에서 영조와의 인식차이로 치죄를 받게 되었다. 내용을 보면,

“영조: (『小學』의 <立教篇>을 외우고 나서) <子夏章>을 <立教篇> 끝에 붙임은 무슨 뜻인가?  
 金魯淳: 編次를 정할 때에 자연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진 이를 어질게 여기되 女色을 좋아하듯 한다.’의 대구는 곧 ‘악취를 싫어하듯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上章의 ‘널리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진 사람을 친하게 한다.’는 것과 서로 表裏가 됩니다. ‘賢賢’의 한 구절에 聖意를 두소서.

영조: 내가 물은 것은 無心히 한 것인데, 그대의 대답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는 내가 평소에 고심하여 굳게 지킨 것이다. (중략)하고 (책상을 치며) 魯淳이 감히 ‘賢賢’으로써 비유하여 어찌 나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 아닌가? 文義로 私意를 介入시켰으니, 이와 같이 하여 그치게 하지 않는다면 大訓도 장차 물속에 던져 버릴 것인가? 마땅히 始初에 그 폐단을 막아야 하니, 교리 金魯淳에게 특별히 서용치 않는 율을 시행하라.”<sup>159)</sup> 하였다.

이 글에는 영조가 과민반응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문장의 의미와 ‘賢賢’에 자신을 비유했다는 오해로 인해 경연에서 같이 글을 읽은 신하를 치죄한 다는 것은 과도한 처사로 생각된다. 6일에는 주장 후 『警世問答』을 읽었다. 4월은 18회(1, 4, 5, 6, 7, 8, 9, 10, 12, 13, 14, 15, 18, 19, 22, 24, 27, 28일)로 가장 많은 독서 횟수를 보였다. 5일 주장은 <彰義宮>의 養性軒에서 열었다. 5월은 10회(3, 9, 10, 14, 15, 16, 17, 18, 19, 28일), 윤5월은 12회(3, 6, 8, 11, 12, 14, 17, 20, 23, 25, 27, 29일), 6월은 8회(4, 9, 11, 17, 21, 22, 25, 30일), 7월은 10회(4, 5, 6, 8, 9, 13, 15, 19, 24, 29일), 8월은 11회(3, 5, 8, 9, 11, 20, 21, 22, 23, 27, 28일)였으며, 책은 계속해서 『小學』을 읽은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로 동월 9일 영조가 ‘지금 읽고 있는 『小學』 題辭는 역시 仁의 단서의 만분의 일이다.’라고 한 기록에서 알 수 있다.<sup>160)</sup> 9월의 주장은 8회(4, 6, 10, 17, 18, 22, 27, 28일)였으며, 10월은 휴강하고, 11월은 6회(9, 12, 13, 18, 20, 22일), 12월은 7회(7, 10, 13, 14, 21, 24, 29일)의 주장을 실시하였다. 결국 영조 46년에는 그 동안 영조집권사상 『小學』이란 한 책을 읽으면서 119회라는 가장 많은 독서 횟수를 보였다. 영조 47년(1771) 1월의 주장은 10회(5, 6, 10, 12, 14, 17, 18, 24, 25, 28일)였으며, 5일에는 <思政殿> 뜰에서, 12일에는 <崇政殿> 뜰에서 주장을 하였다. 2월에는 17일과 25일 2회, 3월은 28일 1회, 4월은 5회(4, 5, 10, 14, 21), 5월은 4회(9, 14, 19, 20일), 6월은 6회(4, 15, 19, 20, 21, 23일)로 <崇政殿> 東月臺에서 독서했으며, 7월은 8일 1회, 8월은 10일과 21일 2회로 장소는 역시 <崇政殿>을 이용하였다. 9월도 2일과 14일 2회인데, <集慶堂>에서 주장하였다. 10월은 1일과 17일 2회 실시하고 11월, 12월 모두 휴강하였다. 영조 48년(1772) 1월은 4회(11, 12, 14, 29일)로 11일은 <資政殿>에서, 12일은 <德游堂>에서 『小學』을 읽은 뒤 어린이들에게 강독하도록 하고 지필묵을, 동몽교관에게는 鹿皮를 하사하였으며, 14일에는 <崇政殿> 月臺에서 『大學』을 읽고,

159) 『朝鮮王朝實錄』 英祖 46年 3月 4日(辛巳) 卷114. 冊44. p.348.

160) 『朝鮮王朝實錄』 英祖 46年 8月 9日(壬午) 卷115. 冊44. p.360.

유생들을 초빙하여 夙興夜寐箴을 외도록 한 뒤 각각 종이를 하사하고 학문에 힘쓰도록 하였다.<sup>161)</sup> 29일까지 <崇政殿> 月臺에서 『大學』을 읽었다. 2월에는 7회(5, 7, 8, 9, 12, 13, 17일)를 독서하였는데, 5일 『大學』, 7일 <德游堂>에서 『大學衍義』를, 8일에는 <崇政殿> 東月臺에서 다시 徐命膺 등과 『小學』을 읽었으며,<sup>162)</sup> 9일에는 <集慶堂>에서 『大學』을, 12일에는 <彰義宮>에서 『大學』, 13일에는 <崇政殿> 東月臺에서 『大學衍義』, 17일에는 <集慶堂>에서 『小學』을 읽었다.<sup>163)</sup> 3월에는 5회(1, 5, 14, 22, 27일) 주강을 실시했는데, 1일은 <集慶堂>에서 『大學衍義』, 5일, 14일은 <資政殿>에서 『小學』, 22일은 <集慶堂>에서 『大學衍義』, 27일에는 <崇政殿> 東月臺에서 『大學』을 읽었다. 4월에는 8회(4, 9, 14, 16, 22, 24, 27, 29일)로 4일 <崇政殿> 東月臺에서 『小學』, 9일, 14일, 16일, 22일은 <資政殿>에서 『小學』, 24일은 <延和門>(근처의 司饗院?)에서 『大學』, 27일에는 <資政殿>에서 『大學』을 강독하였으며, 29일 주장에서는 시독관 鄭好仁, 특진관 蔡濟恭이 戒服차림으로 주장에 참석했다하여 지적받았으나 영조가 가상히 여겨 虎皮를 하사하였다.<sup>164)</sup> 5월은 7회(4, 5, 9, 14, 21, 25, 27일)로 4일 영조는 『小學』을 읽고 “灑掃하고 應對하는 것은 잔단 일인 듯하나, 바로 『小學』의 根基이다.”<sup>165)</sup>라 하여 『小學』을 읽는 이유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5일은 <崇政殿> 月臺에서 『小學』, 9일은 <司饗院>에서 『大學』, 14일, 21일은 <崇政殿> 月臺에서 『大學』, 25일은 <集慶堂>에서 『大學』을 강독하고, 27일에는 <崇政殿> 東月臺에서 『小學』을 읽었다.<sup>166)</sup> 6월의 주강은 4회(2, 4, 14, 23일)였으며, 2일 시독관 徐迥修와 <集慶堂>에서 『大學衍義』, 4일 <崇政殿> 東月臺에서 『小學』, 14일과 23일은 <崇政殿> 東月臺에서 『大學』을 읽었다.<sup>167)</sup> 7월에도 4회(3, 14, 19, 24일)로 3일, 14일엔 <崇政殿> 東月臺에서 『小學』, 19일에는 <集慶堂>에서 『大學』, 24일에는 <崇政殿> 東月臺에서 『大學』을 강독하였다. 8월은 4일 1회는 『大學衍義』, 9월 7일과 14일 2회는 <崇政殿>에서 『小學』을 강독하였다. 10월은 7회(16, 18, 23, 24, 25, 27, 29일)의 독서를 하였으며, 16일은 『大學』과 『詩經』 <魏風>의 ‘陟岵章’을, 18일은 『大學』, 23일과 24일은 『小學』을, 25일은 ‘陟岵章’을 강독하였다. 27일은 <德游堂>에서 『大學衍義』, 29일은 장소는 <集慶堂>에서 『大學』을 읽었다.<sup>168)</sup> 11월은 3일과 29일 2회 주강을 하였으며, 3일에는 <德游堂>에서 『大學』, 29일에는 <集慶堂>에서 『小學』을 읽었다. 12월의 주강은 15일, 23일, 28일 3회 열어 <集慶堂>에서 『大學』을 강독하였다. 영조 49년(1773) 1월은 3일, 20일, 25일까지 3회로 3일에는 <崇政殿> 東月臺에서 『小學』, 20일에는 <集慶堂>에서 『大學』, 25일에는 <德游堂>에서 『小學』을 강독하였다.<sup>169)</sup> 2월은

161) 『朝鮮王朝實錄』 英祖 48年 1月 12日(戊申) 卷118. 冊44. p.408.

162) 『朝鮮王朝實錄』 英祖 48年 2月 8日(癸酉) 卷118. 冊44. p.412.

163) 『朝鮮王朝實錄』 英祖 48年 2月 17日(壬午) 卷118. 冊44. p.413.

164) 『朝鮮王朝實錄』 英祖 48年 4月 29日(甲午) 卷118. 冊44. p.419.

165) 『朝鮮王朝實錄』 英祖 48年 5月 4日(戊戌) 卷118. 冊44. p.419.

166) 『朝鮮王朝實錄』 英祖 48年 5月 27日(辛酉) 卷118. 冊44. p.420.

167) 『朝鮮王朝實錄』 英祖 48年 6月 23日(丁亥) 卷118. 冊44. p.422.

168) 『朝鮮王朝實錄』 英祖 48年 10月 29日(庚寅) 卷119. 冊44. p.439.

169) 『朝鮮王朝實錄』 英祖 49年 1月 25日(乙卯) 卷120. 冊44. p.445.

25일 1회 <集慶堂>에서 『小學』을 읽었다. 3월도 10일 하루만 <集慶堂>에서 『小學』을 읽었는데, 당시 영조는 大耋(80세)이 되어 경연을 오래도록 하지 않았으며, 경연을 한다 하더라도 『大學』은 經一章, 『小學』은 立教篇 및 『大學衍義』는 首章만을 輪講하였으며, 儒臣들도 책만 끼고 참가해서 조용히 있다가 몇 마디로 책임만 다하고 물러나곤 하였다.<sup>170)</sup> 즉, 나이 들어서 읽어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씩 장만 반복해서 읽기 때문에 경연관들도 형식만 갖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윤3월은 3회(7일, 13일, 23일) 실시했는데, 3회 모두 <集慶堂>에서 『大學』을 강독하였다. 4월에는 24일과 30일 2회로 24일은 <崇政殿> 東月臺에서 『小學』, 30일은 동장소에서 『大學』을 읽었으며, 湖堂의 丁範祖에게 시를 짓도록 하여 술을 하사하였다.<sup>171)</sup> 5월은 20일 1회 <資政殿>에서 『大學』, 6월에는 15일 1회 <德游堂>에서 『小學』을 강독하면서, 영조는 “내가 13세에 강독했던 책을 팔순나이에 다시 읽는다. 만약 옛날에는 부족한 것이 아니었다면, 지금은 어찌 여한의 교훈이 있겠으며, 어찌 느낌이 없겠는가? 책은 책대로 나는 나대로 이니 나도 모르게 탄식할 뿐이다.”<sup>172)</sup> 읽어도 읽어도 실효는 없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결국 영조는 7월까지 휴강하고 8월 7일 하루 <崇政殿> 東月臺에서 『大學』을 읽었다. 다시 9월, 10월 휴강하고, 11월 1일과 12일 2회로 1일엔 <集慶堂>에서 『小學』, 12일에는 『大學』을 읽었다. 12월에는 11일과 15일 주강을 실시한 바 11일에는 耆社 당상관까지 참석시켜 『列女傳』을 읽었는데, 영조가 왜 갑자기 이 책을 주강에서 읽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경연관 및 耆社 당상관들까지 한 장을 읽도록 한 것이다. 15일엔 다시 『大學』을 읽었으며, 동몽교관에게는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게 하여 『小學』을 강독하도록 하고 문답하였다.<sup>173)</sup> 영조 50년(1774) 1월은 10일과 16일 2회 실시하였다. 10일에는 우참찬 趙明鼎 등과 <集慶堂>에서 『大學』을, 16일에는 <崇政殿> 東月臺에서 『小學』을 읽었다. 그리고 다음해 51년(1775) 11월 20일까지 휴강하였다. 11월 21일 하루 <集慶堂>에서 『小學』을 읽고, 세손에게도 읽도록 하고 다음과 같이 문답하였다.

“영조: 『小學』한 질은 차례에 條理가 있고 질서가 정연하다. 아이를 배었을 때 기우듬히 서지 않고 치우쳐 앉지 않으면, 아들을 낳 때 과연 능히 단정할까?

세손: 자식을 배었을 때 진실로 이와 같이 한다면 능히 감동한 바 있어 자식을 낳으면 반드시 어질 것입니다.

영조: 물 뿌려 쓸고 應對하는 데에서 治國平天下에 이르는 것인데, 오늘날에 와서는 유독 三代(夏, 殷, 周) 때의 정치를 할 수가 없었다.

세손: 三代 이후에는 『小學』의 가르침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大學』의 가르침도 역시 행하여지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물 뿌려 쓸고 응대하는 데서부터 능히 그 공부를 다 하였다면, 또한 거기에서 미루어 修身齊家治國平天下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sup>174)</sup>

170) 『朝鮮王朝實錄』 英祖 49年 3月 10日(己亥) 卷120. 冊44. p.448.

171) 『朝鮮王朝實錄』 英祖 49年 4月 24日(壬子) 卷120. 冊44. p.453.

172) 『朝鮮王朝實錄』 英祖 49年 6月 15日(癸卯) 卷120. 冊80. p.27. B면.

“上曰: 予十三歲所講之書, 八旬復讀, 如昔非不足, 今豈有餘之訓, 豈不曠感? 而書自書我自我, 不覺自歎而已.”

173) 『朝鮮王朝實錄』 英祖 49年 12月 11日(乙未) 卷120. 冊44. p.461.

174) 『朝鮮王朝實錄』 英祖 51年 11月 21日(甲午) 卷125. 冊44. p.504.

이는 영조가 손자와 『小學』을 읽으며, 세손이 治國平天下의 꿈을 이루길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12월 27일에도 <集慶堂>에서 『大學』 1장과 補亡章을 암송하고 세손에게 계속 읽도록 한 후 문답하였다.

“영조: 어째서 入德하는 門이라 하는가?

세손: 工夫의 차례로써 말한 것입니다.

영조: 德에 들어갈 문이 있는가?

세손: 『大學』의 格致誠正에서부터 修齊治平에 이르기까지 각기 階級이 있는데, 비유하자면 門路와 같습니다.

영조: 어떻게 해야 『大學』의 도를 행할 수 있는가?

세손: 만약 『大學』에서 힘을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小學』을 근본으로 삼을 뿐이며, 物欲이 모조리 깨끗해진 연후에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영조: 물욕은 어찌하여 이치랄 없애기가 어려운가?

세손: 물욕은 形氣에서 나오기 때문에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영조: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만약 豁然 貫通한다면, 어찌 草木과 함께 썩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네가 만약 이 뜻을 본받지 않는다면, 이는 나를 등지는 것이요, 조정을 등지는 것이며, 저 하늘을 등지는 것이다. 나라의 흥망과 백성들의 休戚이 네 한 몸에 달려 있으니, 어찌 마음에 두지 않겠는가?”<sup>175)</sup>

영조 52년(1776) 주장은 1월 20일과 2월 13일이었다. 1월 20일 <集慶堂>에서 『大學』을 읽고 세손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너는 신하들이 奏對할 때에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있더라도 반드시 넉넉하게 수용하고 너그러이 용서해 주고서 우선 뒷날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취할 바가 있다면 千金을 얻는 것과 같이 해야 할 것이다. 大臣을 공경하고 못 신하를 예우하는 것은 임금이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임금이 된 자는 높은 자리에 있으므로 번번이 못 신하를 낮추어 보는 마음이 있으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반드시 네 할아버지가 오늘 부탁한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대개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 부지런하기를 좋아하지 않기가 쉬우니, 너는 힘쓰라.”<sup>176)</sup>

위의 내용은 영조가 주장에서 세손과 독서한 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다.

이상으로 末期의 독서는 33년부터 52년까지 총 729회였다. 읽은 책은 『中庸』, 『論語』, 『大學』, 『詩經』, 『心經』, 『書經』, 『近思錄』, 『小學』 등으로 이중 『小學』만 42년부터 48년까지 읽었으며, 그 후에도 『大學』과 함께 번갈아가며 52년 1월까지 읽었다.

175) 『朝鮮王朝實錄』 英祖 51年 12月 27日(庚午) 卷126. 冊44. p.521.

176) 『朝鮮王朝實錄』 英祖 52年 1月 20日(壬辰) 卷127. 冊44. p.527.

#### 4. 讀書資料

앞 장에서는 영조 재위 52년의 독서일정을 初期, 中期, 末期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영조가 주강에서 읽었던 자료와 독서 기간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 동안 영조가 주강에서 읽었던 자료는 『論語』, 『孟子』, 『中庸』, 『書經』, 『禮記』, 『詩傳』, 『周易』, 『春秋集傳』, 『心經』, 『周禮』, 『大學』, 『近思錄』, 『小學』 등이다. 이를 <表>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表 1> 書講資料

書講資料	開讀年月日	完讀年月日
論語	1년 1월 5일	1년 7월 16일
孟子	1년 7월 17일	3년 4월 25일
中庸	3년 5월 日(31년 6월)	4년 2월 日(31년 10월)
書傳	4년 2월 9日(31년 4월 2日 <堯典>)	7년 8월 9日
禮記	7년 10월 20日	10년 6월(未完讀)
詩傳	10년 8월 1日	12년 11월 日(未完讀)
周易	12년 11월 17日	14년 9월(未完讀)
春秋集傳	14년 10월 9日	17년 6월
心經	17년 7월(3년 2월 9일 1회)	19년
周禮	20년 11월 7日	24년 6월 14日(未完讀)
大學	31년 10월, 48년 1월 4日	34년 11월, 52년 1월 20日
近思錄	41년 4월 24日 1回, 7월 3日- 11월	未完讀
小學	42년 5월 8日	51년 11월 21日

위의 <表 1>에서 보듯이 영조의 주강자료는 13종에 이른다. 영조 1년(1725) 경연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읽은 책이 『論語』로 1년 1월 5일부터 읽기 시작하여 같은 해 7월까지 읽었다. 7개월의 기간에 완독한 것은 세자 때부터 독서한 이유에서다. 1년 7월 17일부터 『孟子』를 선정하여 3년(1727) 4월 25일까지 1년 9개월 만에 완독하였으며, 『孟子』를 강독한 사이에 3년 2월 9일 『心經』을 1회 읽은 경우도 있었다. 3년 5월부터 『中庸』을 4년 2월 초까지 읽었으며, 4년(1728) 2월 9일부터 『書傳』을 읽어 영조 7년(1731) 8월 9일에 완독하였다. 이 책의 독서기간은 3년 6개월이 소요되었다. 7년 10월 20일부터 『禮記』를 선정하여 10년 6월까지 읽었으나 완독하지 못하고 選讀한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10년(1734) 8월 1일부터 『詩傳』을 시작하여 12년(1736)까지 2년간 독서하였다. 영조 13년(1737)부터는 『周易』을 읽기 시작했으나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중단한 뒤 14년(1738) 10월 9일 『春秋集傳』을 17년(1741) 6월까지 읽었다. 17년 7월 『心經』을 선정하여 19년(1743)까지 읽고, 20년(1744) 11월 7일부터 『周禮』를 선정하여 읽었는데, 완독한 기간은 확실히 알 수 없다. 다만 24년(1748) 6월까지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24년 7월부터 33년(1757)까지 주강을 정지했기 때문이다. 중간에 31년(1755) 2월 12일과 4월 2일 2회 주강을 실시했는데 이 때 읽은 책은 『書傳』 <堯典>이었다.

약 9년을 주장을 정지한 뒤 재위 34년(1758)부터는 『中庸』과 『大學』을 번갈아가며 읽었다. <表 2>를 보면 34년 6월 16일부터 『中庸』을 읽기 시작하여 39년(1763) 9월 21일까지, 『大學』은 34년 10월 8일 시작하여 39년 7월 17일까지 읽었음을 알 수 있다.

<表 2> 『中庸』과 『大學』 讀書日程(在位 34-39年)

書名	中庸	大學
讀書 年月日	34年 6月 16日 - 10月 2日	34年 10月 8日 - 34年 11日
	35年 2月 2日 - 6月 5日	35年 6月 12日 - 同年 8月
	35年 9月 3日 - 36年 1月 11日	36年 2月 5日 - 5月 11日
	36年 5月 12 - 8月	36年 9月 10日 - 11月 12日
	36年 11月 12日 - 37年 5月 6日	37年 5月 11日 - 7月
	37年 9月 - 38年 3月 11日	38年 3月 16 - 5月 7日
	38年 윤5월 - 9월 26日	38年 9월 28日 - 12월
	38年 12月 29日 - 39年 2月 27日	39年 6월 9日 - 7월 17日
	39年 7월 18日 - 9월 21日	

『中庸』과 『大學』의 책을 읽으며, 간간히 예전에 읽었던 『論語』(39년 2월 29일- 6월 9일)와 『孟子』(39년 9월 22일- 40년 9월 15일)를 읽기도 하였다. 『詩經』도 영조 10년부터 12년 11월까지 읽었는데, 다시 40년(1764) 9월 16일부터 41년(1765) 2월 8일까지 읽었으며, 『心經』도 41년 2월 21일부터 윤2월 4일까지 읽었다. 4년에 읽은 『書經』도 41년 윤2월 5일부터 6월까지 읽었다. 그리고 『書經』을 읽은 사이에 『近思錄』을 선정하여 41년 4월 24일 1회 읽고, 7월 3일부터 11월까지 읽었다. 재위 42년(1766)부터 『小學』과 『大學』을 맡기까지 <表 3>과 같이 번갈아가며 읽었다.

<表 3> 『小學』과 『大學』의 讀書日程(在位 42- 52年)

書名	小學	大學
讀書 年月日	42年 5月 8日 - 48年 1月 12日	
	48年 2月 17日, 4月 4日- 23日, 5月 4日- 8日, 27日-6월 1日, 6월 4日- 13日, 7월 3日-14日, 9월 7日-14日, 10월 23日- 24日, 11월 29日	48年 1월 14日- 2월 13日, 3월 1日- 27日, 4월 24日- 5월 3日, 5월 9日- 26日, 6월 2日, 6월 14-23日, 7월 19日- 8월 4日, 10월 16日-18日, 10월 27日-11월 3日, 12월
	49年 1월 3日, 25日, 2월 25日, 3월 10日, 4월 24日, 6월 15日, 11월 1日	49年 1월 20日, 윤3월, 4월 30日- 5월 20日, 8월 7日, 11월 2日- 50年 1월 10日
	50年 1월 16日, 51年 11월 21日	51年 12월 27日, 52年 1월 20日

처음 『小學』을 42년(1766) 5월 8일부터 48년(1772) 1월 12일까지 읽고 나서 『大學』으로 책을 바꾸면서부터 51년(1775)까지 교대로 읽기 시작한 것이다. 즉, 『小學』은 재위 42년에 독서를 시작하여 51년까지 약 9년 정도 읽었으며, 『大學』은 <表 1>의 재위 31년에 2회 독서했던 걸 제외하고라도 <表 2>에 나타난 독서 기간이 34년부터 39년까지이며, 약 8년 정도 중단한 뒤 다시 48년부터

시작하여, 52년(1776) 1월까지 읽었으므로 영조는 『小學』과 『大學』을 아주 선호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영조는 13종의 책을 읽었다. 초기에는 부왕 숙종의 독서순서인 『論語』, 『孟子』, 『中庸』, 『書傳』 순에 따라 독서하였다. 그 후 정치적인 환경과 年老함에 따라 말기에 가서 『小學』과 『大學』 위주로만 독서를 하였던 것이다.

### 5. 讀書回數分析

영조의 경연은 朝講, 晝講, 夕講, 夜對 및 召對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晝講만을 대상으로 그 독서 횟수를 조사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表 4> 晝講의 讀書回數

年度	1	2	3	4	5	6	7	8	9	10	11	12	計	累計
1	5	6	7	7	6	0	2	3	7	4	2	0	49	49
2	0	2	5	2	4	5	0	1	2	2	5	2	30	79
3	0	3	4윤7	5	4	0	1	4	1	6	3	0	38	117
4	5	5	0	0	0	0	1	5	4	0	0	0	20	137
5	0	3	7	4	4	2	윤6	4	6	2	0	0	38	175
6	2	1	1	2	0	0	0	0	0	0	0	0	6	181
7	1	0	2	3	3	1	0	1	0	4	5	0	20	201
8	6	4	6	6	윤4	0	0	0	1	0	0	0	27	228
9	0	0	0	0	9	0	0	0	8	5	6	0	28	256
10	0	3	3	4	7	6	0	6	7	2	2	1	41	297
11	0	5	0	2윤11	0	0	6	3	0	4	0	0	31	328
12	0	4	2	2	9	1	0	0	6	5	8	1	38	366
13	1	0	0	2	3	1	0	3	6윤6	7	0	0	26	392
14	4	1	0	2	1	0	1	0	5	4	1	0	19	411
15	3	0	1	1	2	5	0	0	2	0	3	1	18	429
16	0	1	3	6	2	3	2	4	4	1	2	0	28	457
17	4	6	5	7	1	6	4	0	0	3	0	0	36	493
18	4	1	0	8	0	0	0	2	3	4	0	0	22	515
19	1	0	1	윤1	0	0	0	0	0	0	1	0	4	519
20	2	2	4	2	0	0	0	0	2	0	8	1	21	540
21	1	0	0	0	3	3	0	0	2	1	1	1	12	552
22	1	6	7윤1	10	4	0	0	0	0	1	0	2	32	584
23	2	4	6	2	1	0	0	0	0	0	4	0	19	603
24	0	2	0	0	2	3	0	0	0	0	0	0	7	610
25	0	0	0	0	0	0	0	0	0	0	0	0	0	-
26	0	0	0	0	0	0	0	0	0	0	0	0	0	-
27	0	0	0	0	0	0	0	0	0	0	0	0	0	-
28	0	0	0	0	0	0	0	0	0	0	0	0	0	-

年度 \ 月	1	2	3	4	5	6	7	8	9	10	11	12	計	累計
29	0	0	0	0	0	0	0	0	0	0	0	0	0	-
30	0	0	0	0	0	0	0	0	0	0	0	0	0	-
31	0	1	0	1	0	0	0	0	0	0	0	0	2	612
32	0	0	0	0	0	0	0	0	0	0	0	0	0	-
33	0	0	0	0	0	0	0	0	0	0	0	0	0	-
34	0	0	0	0	0	3	2	3	12	3	5	0	28	640
35	0	3	2	4	0	3윤3	3	1	2	3	3	3	30	670
36	3	2	2	3	3	3	3	2	3	3	3	3	33	703
37	2	2	0	3	3	2	6	0	3	2	3	3	29	732
38	3	3	3	1	2윤3	0	10	4	12	9	4	1	55	787
39	10	8	5	13	11	9	10	4	9	4	8	2	93	880
40	10	4	9	8	14	8	11	7	9	11	8	4	103	983
41	12	7윤10	6	10	9	10	6	6	7	8	6	0	97	1080
42	0	0	0	0	1	0	0	0	1	1	0	0	3	1083
43	0	1	0	1	1	0	0	1	0	0	0	0	4	1087
44	1	0	0	0	0	1	0	0	0	0	0	0	2	1089
45	0	1	0	0	1	0	0	0	0	9	5	5	21	1110
46	10	10	9	18	10윤12	8	10	11	8	0	6	7	119	1229
47	10	2	1	5	4	6	1	2	2	2	0	0	35	1264
48	4	7	5	8	7	4	4	1	2	7	2	3	54	1318
49	3	1	1윤3	2	1	1	0	1	0	0	2	2	17	1335
50	2	0	0	0	0	0	0	0	0	0	0	0	2	1337
51	0	0	0	0	0	0	0	0	0	0	1	1	2	1339
52	1	1	-	-	-	-	-	-	-	-	-	-	2	1341
총 횟수	113	122	114	166	151	97	89	80	142	117	107	43		1341

재위 51년 7개월간 영조의 주장은 총 1341회였다. 재위 기간 중 <表 4>에서 보듯이 가장 많이 독서한 해는 재위 39년 93회, 40년 103회, 41년 97회였으며, 그리고 46년엔 119회로 최고의 독서율을 보였다. 가장 저조한 독서 횟수를 연도별로 보면 재위 6년 6회, 19년 4회, 24년 7회, 25년부터 30년까지 6년간 0회, 31년 2회, 32년 0, 33년 0, 42년 3회, 43년 4회, 44년 2회, 50년부터는 1, 2월에 1회씩, 51년은 11, 12월 1회씩, 52년 1, 2월 1회씩 한 것이 전부다. 영조는 주장에서 독서한 52년 중 18년은 거의 독서를 하지 않았다. 월별로 가장 많은 독서 횟수는 4월 166회로 가장 많고, 다음은 5월 151회, 9월 142회 순이다. 이는 봄과 가을에 가장 많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보아 이 계절에 독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독서 횟수가 가장 적은 달은 12월 43회, 8월 80회, 7월 89회, 6월 97회 순으로 이는 겨울과 여름에 휴강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조는 재위 기간 동안 독서 횟수는 연 평균 26회로 나타났으며, 월별로는 평균 2.16회로 나타났다. 부왕인 숙종이 1년 평균 25.6회, 월별로는 2회 정도 독서한 것으로 보면<sup>177)</sup> 거의 비슷한 독서 횟수를 보이고 있다. 결국 英祖도 독서력에 있어서 저조한 이력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7) 金重權, “朝鮮朝 經筵에서 肅宗의 讀書歷 考察,” 『서지학연구』 제75집(2018. 9), 65-94.

## 6. 結 言

이상 조선조 21대 왕인 英祖를 대상으로 晝講에서 51년 7개월 동안의 독서 일정을 파악하여 그의 독서력을 고찰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조는 숙종 20년(1694)에 태어났다. 이름은 旻이고 자는 光叔, 호는 養性軒이다. 경종 4년(1724) 세상을 뜨게 되자 조선 21대 왕으로 등극하여 영조 52년(1776) 3월까지 51년 7개월을 집권하였다.

둘째, 즉위년에 경연제도를 재정비하여 참석범위를 옥당관외에 조강 때는 三公 중 한 사람, 주장과 석강은 知經筵과 同知經筵이 돌아가며 참석하고, 야대에는 玉堂官만 참여하도록 하였다. 강관이 아니더라도 학식에 고명한 사람, 그리고 도총부와 병조의 당상이나 二品 이상의 관리가 공무로 대궐에 들어 올 경우 그 중 1명만 소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경연의 장소는 時敏堂, 宣政殿, 明政殿, 涵仁亭, 崇文堂, 恭默閣, 明政殿, 歡慶殿, 熙政堂, 彰義宮, 興政堂, 景賢堂, 隆武堂, 崇政殿의 東月臺, 資政殿, 思政殿, 集慶堂, 德游堂, 司饗院 등 19곳을 활용했으며, 주장 시간은 여름철의 경우 날씨가 더울 때는 巳時(9-11시)로 하다가 辰時(7-9)로 바꾸었다가 영조 12년(1736) 5월부터는 다시 辰正(오전 8시)으로 규정을 설정하였다.

넷째, 주장에서의 독서일정에 따른 초기의 독서 횟수와 읽은 책은 영조 1년부터 12년까지 총 366회의 독서를 하였으며, 책은 『論語』, 『孟子』, 『心經』, 『中庸』, 『書經』, 『禮記』, 『詩傳』 등 7종이었다.

중기의 경우 13년부터 32년까지의 주장에서의 독서 횟수는 246회로 읽은 책은 『周易』, 『春秋集傳』, 『心經』, 『周禮』 등 3종을 읽었다. 중기의 독서는 초기의 독서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독서를 보였다. 말기의 독서는 33년부터 52년까지 729회로 읽은 책은 『中庸』, 『論語』, 『大學』, 『詩經』, 『心經』, 『書經』, 『近思錄』, 『小學』 등이다.

다섯째, 재위기간 중 중복 독서한 책을 제외하면 『論語』, 『孟子』, 『中庸』, 『書經』, 『禮記』, 『詩傳』, 『周易』, 『春秋集傳』, 『心經』, 『周禮』, 『大學』, 『近思錄』, 『小學』 등 총 13종을 읽었다. 그러나 24년 7월부터 33년까지 약 9년을 주장을 정지한 뒤 재위 34년부터는 『中庸』과 『大學』을 39년까지 번갈아 읽었으며, 또한 『小學』과 『大學』을 48년 1월부터 52년 1월까지 교대로 읽었다. 이는 영조가 나이가 들면서 『中庸』과 『小學』, 『大學』을 선호했다는 근거이다.

여섯째, 재위 52년 동안 주장에서의 독서 횟수는 총 1,341회였다. 이 중 가장 많이 독서한 해는 재위 38년 55회, 39년 93회, 40년 103회, 41년 97회였으며, 그리고 46년엔 119회로 최고의 독서율을 보였다. 가장 저조한 독서 횟수를 연도별로 보면 재위 6년 6회, 19년 4회, 24년 7회, 25년부터 30년까지 6년간 0회, 31년 2회, 32년 0, 33년 0, 그 밖에 42년 3회, 43년 4회, 44년 2회, 50년부터는 1, 2월에 1회씩, 51년은 11, 12월 1회씩, 52년 1, 2월 1회씩 한 것이 전부다. 연평균 독서 횟수를 보면 26회로 나타났으며, 월별로는 2.16회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英祖는 재위기간 동안 주장에서의 독서는

부실했음이 나타났다. 부왕인 숙종과 비교해도 거의 비슷한 결과로 저조한 독서력을 보였다. 이상 본 연구로 인하여 조선조 경연사 및 제왕의 독서력 비교, 독서의 역사적인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經國大典』 서울: 일지사, 1988.  
『增補文獻備考』 영인본. 서울: 명문당, 1985.  
『英祖實錄』 영인본.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6.  
『肅宗實錄』 영인본.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6.  
姜泰訓. “朝鮮朝 經筵의 教育的 役割.”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대학원. 1991.  
金重權. “朝鮮朝 經筵에서 肅宗의 讀書歷 考察.” 『서지학연구』 제75집(2018. 9). 65-94.  
李相玉. “經筵에 나타난 經學과 帝王.” 『友石 文理大·法經大論文集』 第4輯(1970. 12). 131-186.  
조유희. “영조 어제에 나타난 『詩經』 독서의 양상과 의미.” 『정신문화연구』 제36권 제4호(2013). 230-258.

####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Gyeonggugdeajeon*. 1988. Seoul: iljisa.  
*Jeungbomunheonbiga*. photographic edition. 1985. Seoul: Myeongmundang.  
Jo, Yoong-Hee. 2013. “Reading of Shijing and Its Meaning in King Yeongjo’s Literary Works.” *Korean Studies Quarterly*, 36(4): 230-258.  
Kim, Joong-Gwon. 2018. “A study on the Soogjong’s reading Career in the Gyeongyeon of Joseon Dynasty.”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75: 65-94.  
*Sugjongsillog*. photographic edition. 1986. Seoul: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Yeongjosillog*. photographic edition. 1986. Seoul: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